

석사학위논문

# 부활절 그 후

- 앤 데블린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이 수 아

2003년 12월

# 부활절 그 후

지도교수 박 경 란

이 수 아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수아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3년 12월

# After Easter

Sua Lee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3. 12.

## 목차

ABSTRACT .....	1
I. 작가 소개 .....	2
II. 헌정사 .....	3
III. 초연안내 .....	4
1. 감사의 말 .....	4
2. 출연진 소개 .....	5
III. 등장 인물 .....	6
IV.본문 .....	8
참 고 문 헌 .....	111

## Abstract

This play, *After Easter* by Anne Devlin tells the story of three Irish sisters and their struggle with religion, politics, and their family history.

Greta, an Irish ex-patriot living in England, has been having religious visions for years. When she sits down in the road and is almost hit by a bus, her husband has her committed. As the play begins, her two sisters get her released, but on her first night out of the hospital, Greta has yet another disturbing vision. The same night, the sisters learn of their father's heart attack. After drifting apart over the years, the three have a rather unwanted family reunion in Belfast. With one of them coming directly from the psychiatric ward and their father fatally ill, this get-together is bound to be one of the turbulent sort. Comic and touching, it confronts the estranged family members with their opposing attitudes and their pasts.

It examines the personal and social backgrounds of Northern Irish citizens living in Ulster and on the British mainland. The play is not political, more psychological and humorous, offering a contemporary portrait of a woman who reache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her life.

## I. 작가 소개

앤 데블린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그녀의 첫 희곡 작품인 「우리끼리(Ourselves Alone)」는 1985년 왕립 극장에서 공연되어 평론가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 후 BBC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희곡을 썼으며 파라마운트사가 1991년 제작한 영화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의 각색을 맡았다. 1982년 헤네시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과 사무엘 베케트상 텔레비전 드라마 부문을 수상했다. 1985년에는 수잔 스미스 블랙번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리끼리」로 1986년 조지 디바인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외 앤 데블린의 작품으로 「전화하는 여자」, 「긴 행진」 등이 있다.



## II. 헌정사

나의 어머니

테레사 거투르드 이타 올리비아에게 바칩니다.



### III. 초연 안내

#### 1. 감사의 말

폐기 램지의 어려운 작업을 잘 따라준 탐 얼하트와 멜 케년, RSC 문학부의 콜린 챔버스, 그리고 최고의 연출가 마이클 에텐보로에게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많은 인내와 훌륭한 감각으로 열심히 임해준 배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A.D.





## 2. 출연진 소개

「부활절 그 후」는 왕립 셰익스피어 컴퍼니에 의해 1994년 5월 18일 스트라트포드의 아더 플레이스에서 초연되었다. 출연진은 다음과 같다.

그레타	스텔라 고넷
이파	앤 하슨
로즈 플린	도린 햅번
헬렌	캐더린 로저스
이머/엘리쉬	제니스 맥켄지
멜다/대사 없는 수녀	클레어 캐리
매너스 플린	윌리엄 휴스턴
마이클 플린	리암 오칼라한
폴 와터슨	손 오칼라한
킴벨/지휘관	로이 워드
군인 1	조나단 딘
군인 2	대런 로버트
연출	마이클 에텐보로
무대장치	프랜시스 오코너
조명	로버트 존스
음악	제니 머스켓

### III. 등장 인물

그레타 - 이파의 언니, 옥스퍼드에 산다. 북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선생님이다. 조지와 결혼하여 열한 살짜리 쌍둥이와 갓난 아이가 있다. 서른 일곱 살

이파 - 자신이 태어난 울스터의 마을인 톰브리지 근처에 산다. 결혼하여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역시 선생님이다. 서른 다섯 살.

헬렌 - 상업 미술가로 활동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런던에 살고 있다. 그레타와 이파의 동생으로 서른 세 살.

로즈 - 세 자매의 어머니로 북부 벨파스트에서 포목상을 운영하고 있다. 가게 뒤편에 있는 집에서 남편 마이클, 아들 매너스와 함께 산다.

엘리쉬 - 수녀로 그레타의 사촌. 어머니인 클레어는 로즈의 여동생이다. 현재 수녀원 원장이다. 서른 여섯살.

에머 - 간호사. 이파와 함께 학교를 다녔음. 지금은 벨파스트에 있는 왕립 빅토리아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레타나 헬렌과 마찬가지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했다.

멜다 - 무용수. 왕립 빅토리아 병원의 환자. 현재 임신중이며 아주 어렵다.

마이클 -세 자매의 아버지. 어부였으며 현재는 부인 로즈, 아들 매너스와 함께 벨파스트에 산다.

매너스 -세 자매의 남동생. 벨파스트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스물 네살.

캘벨 - 탕글우드 병원의 정신과 의사. 에딘버러에서 태어났다.

폴 - 왕립 빅토리아 병원의 제복 입은 경찰관. 서른 다섯 살.

군인 1 -잉글랜드 북부 출신



군인 2 -스콧트랜드 출신

지휘관 -고등교육을 받은 잉글랜드 억양을 씀

## 제1장

### 현재

삼십대 후반의 아일랜드 여성인 그레타가 마루나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얼굴에 조명이 비친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다. 그레타 외에 방안에 누군가가 있다. 어두운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다.

그레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면 항상 길 위에 앉아 있곤 하는 당신 모습이 자주 눈에 띄더군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죠. 난 오히려 조용히 있어요. 엄마는 나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엄마 내 뒤를 쫓아 이층으로 올라 와서는 내 머리채를 잡아 당겼어요. 난 침대를 방문 뒤로 끌어 당겨 막아 놓고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죠. 그러면 엄마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쿵쿵 두들겨 댔어요. 하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엄마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만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선 잊어버렸어요. 그럼 난 침대에 머리를 누르고 잠들었어요. 엄마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야!’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간지럼을 태우면 웃음이 났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대학교 밖에서 모였던 날이었어요. 학생회 건물을 출발하여 소규모 행진을 하기로 되어있었죠. 우리가 팔짱을 끼고 막 행진을 시작하려는데 - 난 맨 앞줄에 있었고 모든 게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뭔가가 확 밀려들더군요. 모든 것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 같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날 미소짓게 했어요. 난 미소를 참으려 했지만 계속 웃음이 밀려들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아주 크게 웃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우린 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행진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아주 단조로웠어요. 나에게서 마치 그 일이 정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를 웃게 만든 일은 여러 가  
지가 있었죠...내 방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내 성기를 비출 때  
도 그랬고요. (방의 조명이 밝아진다. 잉글랜드 어느 병원의 병실  
안. 의사인 그 남자가 그레타 쪽으로 다가온다.)

캠벨 : 아직도 본인이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레타: 아, 나는 모든 사람이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심각하게 흔든다.)

캠벨 : 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지 당신한테 물었더니 '거긴 개신  
교도의 집' 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레타: 그건 사실 이예요. 그 집에선 정말 장로교 분위기가 느껴져요.  
나도 노력해 봤어요. 문도 뜯어내고 바닥도 벗겨내고 온 벽을 녹  
색과 흰색으로 칠해 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다시 보아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집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  
닫게 되었죠. 그 집은 개신교의 집이예요.

캠벨 : 당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비너스가 내 엄마' 라고  
말하더군요.

그레타: 그건 시의 한 구절 이예요.

캠벨 : 어떤 시죠?

그레타: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캠벨 : 그런 식의 대답을 하니까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레타!

그레타: 사람들이 내 말을 끝이곧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내 잘못인가요?

캠벨 : 간호사가 당신 아기를 데려왔을 때도 당신은 '애는 내 아기가 아

니예요!’ 라고 했어요.

그레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드러낸 것 뿐 이에요.

캠벨 : 위원회에서 당신이 아직도 아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입니다.

그레타: 태어난 지 두 주 반된 아기를 내게서 빼앗아 갔어요. 나중에 아기를 다시 데려왔을 때는 이미 더 이상 내 아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기에게 젖먹이는 것을 중단한 며칠 동안은 정말 괴로웠어요. 아기는 이미 자라버렸고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 사람들이 분유를 먹이는 바람에 아기는 똥똥하게 부풀었어요. 그래서 내 아기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난 그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캠벨 : 당신을 도와려는 겁니다.

그레타: 집에 가고 싶어요.

캠벨 : 남편에게로?

그레타: 엄마한테요.

캠벨 : 엄마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 왜죠?

그레타: 왜라니 뭐가요?

캠벨 : 왜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레타: 아빠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요. 나는 엄마를 유혹하고 싶어요. 사실은 당신을 유혹하고 싶어요.

캠벨 : (방을 떠나려 하면서) 잘 있어요 그레타.

그레타: 당신의 그 건전한 윤리의식과 위선 중에 뭐가 더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캠벨 : 위선이라고요?

그레타: 남자들은 대부분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면 같이 자고 싶어하죠. 나는 남자만 보면 같이 자고 싶어지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돼요. 그게 핵심이 아닌가요? 난- 그

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캠벨 : 왜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겁니까?

그레타: 남편이 나를 원하지 않아요.

캠벨 : 당신이 버스 앞에다 자신을 내던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레타: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요.

캠벨 : 그랬어요, 그레타. 이 한 가지 현실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합니다. 버스는 하나의 실체예요. 당신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아이이고 생생하고 실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버스 앞에 자기 몸을 내던지면 죽어요.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여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면 당신은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그레타: 그럼 내 의도가 아니었다면요?

캠벨 : 그럼 더 위험해 지는 거죠.

그레타: 어쨌거나 계속 여기 있어야 하겠네요?

캠벨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레타: 이봐요, 스무 명쯤 되는 사람들과 길에 함께 앉아 있었으면 아마 난 체포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길에 혼자 앉아 있다면 그건 자살 기도예요. 내가 오래 동안 의심해 왔던 게 이제 확실해 지네요. 정신 이상과 정치의 차이는 숫자상의 문제라는 것 말이에요.

캠벨 : 그러니까 자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였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무엇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레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쿵태.

캠벨 : (잘 듣지 못하고는 ) 뭐라고요?

그레타: 따분했어요. 난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방에서 뛰쳐나와서 길 위에 앉았어요.... 사람들 중에는 저녁 모임을 마련한 여자가

끼어 있었는데 그녀는 그 날 아침 이탈리아에서 아스파라거스를 들고 비행기 타고 날아왔던 거예요. 그녀가 부유한 미술 평론가였고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이런 저런 분야의 평론가라는 사실에 분개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난 가난한 화가도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 미술 평론가가 남편의 정부라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죠. 그 때 내가 좀 심한 말을 했더니 어떤 잉글랜드 출신 남자의 부인이 울어버리더군요.

캠벨 : 본인이 아일랜드 인이란 사실이 그렇게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레타: 아일랜드 인이라는 사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적 당하는 게 원망스러운 거죠. 어느 모임에 가든 내가 유일하게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사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캠벨 : 다른 아일랜드 인들을 만나 보는 게 어때요?

그레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난 옥스퍼드에 살아요. 어쨌든 똑같거나 비슷한 억양을 쓰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뭐랄까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당신네 잉글랜드 사람은 항상 그렇게들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죠.

캠벨 : 그게 당신들한테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난 스코트랜드 사람이지만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레타: (그를 자세히 훑어본다) 참, 바보 같군요.

캠벨 : 이혼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레타: 뭐라구요?

캠벨 :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당신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허락될 것 같아요?

그레타: 세상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캠벨 : 부활절 동안 당신을 여동생 집으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레타: 그건 불가능해요! 그 애는 틈에 살고 있어요.

캠벨 : 어디요?



그레타: 톰브리지. 북 아일랜드요. 동생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캠벨 : 여동생이 둘이잖아요.

그레타: 글쎄, 다른 여동생은 정말 크게 성공했어요. 그 동생은 가족들과 연락도 안하고 지내요. 나도 몇 년간 만나보지 못했어요..

캠벨 : 여기서 나가고 싶으세요?

그레타: 당연하죠.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가 문 쪽으로 간다)

캠벨 선생님? 잠깐만요! 제발!

(그가 나간다)

그레타: (투덜거리며) 난 이제 더 이상 내가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세레 요한<sup>1)</sup>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노래를 시작한다)

드넓은 바다 위에 누워 있는 나의 아기.

바다 위에 누워 있는 나의 아기.

드넓은 바다 위에 누워 있는 나의 아기.

오 내 아기를 다시 돌려 줘요.

(다른 목소리로) 그 노래 그만해!

(더듬거리며 노래를 다시 시작한다) 돌려 줘요, 오 돌려줘요,

내 아기를 돌려 줘요, 내게로 -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자 갑자기 노래를 멈춘다. 그녀는 문을 닫고 가방을 소리나게 내려놓는다. 그녀는 한쪽 팔을 팔걸이에 매고 있다)

이파 : 드디어!

---

1) 헤로데왕이 형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다가 체포, 투옥되었는데, 헤로디아의 꾀를 받은 살로메의 청으로 목이 잘려 죽은 운명을 빗대어 말하고 있음.

그레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며) 이파?

이파 : 그레타! (서로 껴안는다)

그레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파 : 아침 내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레타: 오래 기다렸어?

이파 : 언니를 데려 가려고 왔어.

그레타: 데미온과 같이 왔니?

이파 :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어.

그레타: 난 환영을 보는 줄 알았어.

이파 : 의사가 일주일간 가있어도 된다고 했어. 좋은 사람이야. 나라면 그냥 여기 있겠어.

그레타: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눈길을 보내는구나.

이파 : 알았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쳐다보지 않을게. 됐지?

그레타: 팔목이 왜 그러니?

이파 : 카펫 청소기 들고 데미온을 쫓아가다가 부러졌어. 언니 때문이야 정말로.

그레타: 어째서 나 때문이지?

이파 : 언니가 내 생일에 보낸 꽃이 도착했는데 너무 예쁘고 낭만적이어서 난 연인이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 데미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난 꽃 속에 있던 카드를 빼서 불 속으로 던져 버렸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난 온종일 나를 흠모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데려갈 거라는 희망 속에 하루를 보냈어. 내 인생은 엉망이고, 그 집은 구덩이 같아. 정말 싫어.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언니가 보낸 꽃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내 기분은 정말 엉망이었어. 왜냐하면 난 언니에게 아무것도 보낸 적이 없거든. 얼마한테서 언니가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더 엉

망이 됐어. 언니 다시는 그러지 마. 너무 비싸잖아.

그레타: 뭘 다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과 : 나한테 꽃 보내는 거 말야.

그레타: 애인이 많아?

이과 : 전화 번호가 네 다섯 개 있어. 내가 로저 암스트롱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얘기 했어?

그레타: 로저 암스트롱이 누구지?

이과 : 강의가 끝난 후였는데 집에 부인이 없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달라고 우겼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지. 난 피곤한 척 하면서 그의 침실로 들어갔어. 문을 열어놓은 채 침대에 누워 잠든 척 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괜찮은지 보러 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쯤 후에 난 포기하고 집으로 갔어. 데미온이 차 진입로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어. 그 사람은 정말 의심이 많아.

그레타: 이과, 널 보니 정말 반갑다. 너랑 있으면 내가 아주 정상으로 느껴져.

이과 : 언니 정상이야 - 문제가 있는 건 잉글랜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했기에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레타: 버스 앞을 가로막았어. 조지가 경찰에서 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

이과 : 형부 바람났어?

그레타: 그런 것 같아. 그 여자는 미술 평론가야. 다이애나라는.

이과 : 언니를 이렇게 가둬놓지 않으면 바람피지 못한대?

그레타: 그 사람은 있잖아, 아이들을 원하는 것 같아.

이과 : 난 형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언니가 그렇게 차가운 잉글랜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레타: 그게 형부 잘못은 아니지.

이파 : 언니 제발 제발! 형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굴어야겠어?

그레타: 클레어 이모는 아일랜드 사람인 첫 남편이 자기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는 후에 콘월 남자랑 결혼했잖아. 그 남자랑 이십 오 년 간 살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한 여자야. 난 그 가족이 부러워. 이모 네는 우리 부모님 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

이파 : 그건 또 다른 얘가지.

그레타: 그건 확실히 그래.

이파 : 어쨌거나 프랭크 삼촌은 켈트 사람이잖아.

그레타: 난 카톨릭이면서, 동시에 개신교도에다, 힌두교도에, 이슬람 교도에, 유대인이야.

이파 : 알았어. 언니는 쥐새끼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

그레타: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이파 : 나에게 형부에 대해 좋게 말하다니 당치도 않아! 형부는 언니를 정신 병원에 집어넣고서는 아이들 정부 직장 모자란 것 없이 다 갖춰놓고 혼자만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언니 좀 봐! 난 형부를 죽이고 싶다니까!

그레타: 아니, 그건 정말 형부 잘못이 아니야.

이파 : 말하는 건 언니 자유지만 난 잉글랜드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레타: 우리 아이들은 잉글랜드 사람이 되잖아.

이파 : 반만 그렇지. 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아일랜드 식으로 키워도 별탈 없이 잘 자랄 거야.

그레타: 바보 같은 소리하지만, 우리 애들은 잉글랜드 말씨를 쓴단 말야. 아일랜드에 가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신체가 될 걸.

이파 : 언니가 집에서 나온 게 언제였지?

그레타: 톰에 갔던 게 이십 년 전이야.

이과 : 그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를 찾아 뵈는 게 말이야.

그레타: 벨파스트에? 엄마 아빠는 조지를 싫어했잖아. 그래서 난 잘 가지 않았어.

이과 : 애들은?

그레타: 엄마가 널 못살게 굴었구나!

이과 : 언니는 엄마 아빠 계신 곳으로는 절대 안 가잖아.

그레타: 부모님은 조지를 싫어해 - 너만큼이나.

이과 : 하지만 손자들인데!

그레타: 그리고 내 아이들이야! 내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어.

이과 : 어 알아. 난 누구든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야.

그레타: 이과, 넌 태어난 곳에서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잖아.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구. 그리고 동네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이과 : 그렇지 않아. 데미온의 아버지가 강어귀에 땅을 가지고 있잖아. 난 로저 암스트롱과 결혼하고 싶었어 (한숨을 쉰다)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봐..

그레타: 세상에 - 넌 너무 욕심이 많아!

이과 : 내가?

그레타: 넌 항상 그랬잖아. 언제나 모든 게 다 네 차지였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남자와 땅까지! 생각나니?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면 우린 맨 꼭대기에 앉곤 했잖아. 그럴 때면 너는 제일 좋은 집들과 농장들을 골라서는 이렇게 말했어 ‘저건 내가 맨 처음 봤으니까 내 꺼야.’

이과 : 말로만 그런 거야.

그레타: 난 너랑 아일랜드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코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 살지 않을 거야.

이파 : 좋아 - 언니가 꼭 그래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어쨌든 헬렌이 자기와 함께 있자고 우릴 초대했어.

그레타: 세상에! 수치스러워. 몇 년 동안 되는 일이 없던 터에 누가 나한테 손길을 뻗어나 했더니 - 지긋지긋한 헬렌이야.

이파 : 글썄 말야 - 엄만 언제나 헬렌이 돈이라면 눈이 뒤집힌다고 얘기했었어. 하지만 헬렌은 근사한 아파트를 갖고 있어. 바닥에 단풍나무가 깔려 있고 파란 배수관이 설치된, 최상층 아파트인데 흰색 툰으로 꾸며 놓았어. 나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 단장을 해야겠어! 아무튼 우린 런던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야 해.

그레타: 헬렌이 어디까지 알고 있지?

이파 : 언니가 죠지랑 헤어진 건 알고 있어.

그레타: 세상에, 잘 돼 간다!

이파 : 이제 서둘러 - 언니, 신발 신어. 언니 외투 여기 있어. 택시를 부를게.

(그레타가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는다. 이파가 나간다. 그레타는 주위를 둘러보고서 손가락 끝으로 벽을 만져본다.)

그레타: 잘 있어, 방.

(그레타가 나간다)

## 제 2 장

### 저녁

헬렌의 최상층 아파트.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나있는 창이 하나 있다. 헬렌이 손에 마실 것을 들고 생각에 잠긴 채 서 있다. 이 때 이파가 방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이 널찍한 공간에 편안히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려 애쓰고 있다. 그녀는 팔에 매고 있던 봉대를 푼 상태이다.

헬렌 : 어디 보자.

이과 : 아직도 자고 있어.  
(헬렌이 마실 것을 건넨다.)  
고마워. (백포도주를 받아 든다.) 이제 우리 뭐 하지?

헬렌 : 그레타에겐 일이 필요해.

이과 : 아휴, 그렇게 현실적으로 굴지 마. 먼저 자기 몸을 추슬러야지.  
엄마는 온통 제 정신이 아니야.

헬렌 : 엄마는 오랫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과 : 엄마는 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어.

헬렌 : 나? 난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우리 회사에 관리직이 세 자리가 비었는데 자리 하나 정도는 내 권한으로 뽑을 수도 있어.

이과 : 언니는 네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헬렌 : 그렇지 않아. 난 가족들을 사랑해. 다만 너무 바쁠 뿐이야.  
내 상사는 나보고 숨 좀 돌려가며 하라는데 인생은 내일도 계속 이어진다면. 하지만 난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려워.

이과 : 여기에 산 지 얼마나 됐지?

헬렌 : 일 년 정도?

이과 : 계속 있을 거야?

헬렌 : (고개를 끄덕이며) 난 지금 안정되어 있어.

이과 : 안정돼 있다고? (주위를 둘러보며) 왜 미국 사람 말투를 쓰는 거니?

헬렌 : 지금은 런던에서 아일랜드 사람처럼 말하면 좋지 않아.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미국사람처럼 말하면 무사통과야. 하지만 아일랜드 말씨를 쓰면 사복 안전 요원이 가게 안에서 계속 나를 따라 다녀. 과장이 아니야.

이과 : 차라리 잉글랜드 식으로 말하지 그래?

헬렌 : 배신에도 정도가 있지. 나라고 다르겠어?

이과 :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마찬가지로 너 본래의 말씨도 지켜야 하는 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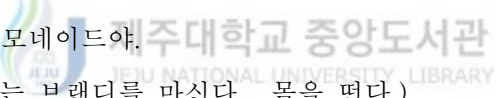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이과의 말끝이 들리지 않게 된다. 두 자매는 그 자리에 고정된 채 서 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꼭 붙잡고 헬렌은 이과의 뒤를 따라 문 쪽으로 조금씩 걸어간다. 헬렌은 그레타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어제친 후 기다린다-)

헬렌 : 그레타! 언니야?

(그레타가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다. 헬렌은 자신들이 있는 방으로 그레타를 끌어 당겨 앉게 한다. 이과가 그레타를 팔로 감싼다. 헬렌은 큰 컵에 마실 것을 따른다.)

자!

그레타: 난 사순절 때문에 술 끊었어.

헬렌 : 이걸 레모네이드야.  (그레타는 브랜디를 마신다. 몸을 떤다.)

그리고 브랜디. (이과에게) 그 여자는 여기 없어. 특별한 일이 있어야 올 거야.

(그레타가 잔을 비운다.)

그레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헬렌 : 왜 소리 질렀어?

그레타: 내가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이과 : 언니가 안 그랬다고?

헬렌 : 그럼 누가 소리 지른 거야?

그레타: 몰라. 하지만 난 아니야.

이과 : 맞아. 언니 소리 같지 않았어.

헬렌 : 무슨 일 있었어?

그레타: 비명 소리에 깬어. 내 발치에 어떤 물체가 서 있었는데 그게 비



명을 지른 거야.

헬렌 : 제발! 삼 년이나 찾아다닌 끝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 부어 얻은 집이라고. 유령이라니 말도 안 돼! 언니가 귀신이 들린 거야.

이과 : 뭘 봤는데?

그레타: 사람의 모습이었어. 긴 머리에 창백하고 비쩍 말랐는데 하얀 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이과 : 어찌면 좋아 - 죽음을 알리는 밴쉬<sup>2)</sup> 유령이야!

헬렌 : 오 제발! 언니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러는 거야. 언니 말 믿는 거 아니지? (그레타에게) 언니는 꿈을 꾸고 있던 거야. 깨어 난 후에 그 꿈이 계속 되어 비명을 질렀던 거라고.

그레타: 난 비명 지르지 않았어.

헬렌 : 나도 피곤할 때면 가끔 그래.

이과 : (그레타에게) 난 언니 말 믿어.

그레타: 날 놀라게 한 건 바로 내가 그 물체에 한 말이야.

이과 : 언니가 말을 했어?

헬렌 : 뭐라고 말했는데?

그레타: 누구세요? 혹시 엄마?

헬렌 : 그것 봐. 유령일 리가 없어. 엄마는 아직 살아 계시잖아.

그레타: 넌 이게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는 경고 말야.

헬렌 : 왜 그게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는 머리카락이 까맣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

이과 : 전에는 그랬어. 젊었을 때는.

헬렌 : 둘 다 똑 같이 못됐어.

이과 : 넌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

2) 죽을 사람이 있음을 통곡으로 예고한다는 아일랜드의 여자 요정

헬렌 : 전혀.

그레타: 비명 소리를 멈추고는 그대로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확실치가 않았어. 설마 내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과 : 난 그게 언니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아마 그 방에 관련된 걸 거야. 아마 잉글랜드 유명일 거야.

헬렌 : 도대체 뭐야 - 언니는 뭐든지 국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유명마저도? (그레타에게) 이 집에는 유명이 나타나지 않아. 언니가 보고 있는 건 언니 자신의 분노라고.

이과 : 헬렌, 다른 사람보다 큰 소리로 말한다고 사람들이 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걸 언제면 깨달을 거니?

헬렌 : 맞는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대개는 그 주장을 기억하게 되지.

그레타: 하지만 이과 말이 맞아. 난 화가 나. 하지만 그 유명은 분노라기보다 비애에 가까워.

헬렌 : 비애?

이과 : 유명이 언니한테 말을 했어?

그레타: 너도 들었잖아!

이과 : 하지만 말을 들은 건 아니야.

그레타: 단지 생각일 뿐이야.

이과 : 어떤 생각?

(그레타가 그 생각을 몸으로 표현한다: 애원하는 모습)

그레타: 마치 아일랜드 전체가 나에게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과 : 오, 맴소사!

그레타: 내가 생각한 것도 바로 그거야. 난 생각했어: 맴소사!

헬렌 : 이제 그 얘기 그만 좀 해!

이과 : 오해하지 마. 하지만 아마 언니도 노력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할 거야. 언니 죄일 수도 있어. 내 말은 언니는 잉글랜드 개신교도와

결혼한데다 아이들도 아무도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레타: 형부는 개신교도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야. 어쨌든 난 고해 성사를 할 수가 없어.

이과 : 왜 못한다는 거야. IRA도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레타: 고해성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난 하느님을 믿지 않아!

헬렌 : 그런데 왜?

그레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토록 화가 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야.

헬렌 : 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레타: 악마! 천사! 환청! 환영! 심지어 유령의 냄새까지 맡는다니까. 전부 다.

헬렌과 이과 : 전부 다가 뭔데?

그레타: 처음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웠어. 불을 끄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환한 대낮에 깨어 있는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도 그런 걸 겪게 돼. 왜 꼭 나여야 해? 카톨릭 신자 아이를 다섯 명이나 낳고 훌륭한 카톨릭 결혼생활을 하는 이과도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미사와 영성체에 참여하고 말야.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 심지어 너 헬렌도 - 네가 사는 방식을 보란 말야. 이과 말로는 너 유부남들과도 잔다며?

(헬렌이 이과를 쳐다보지만 아무도 그레타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에 방구석에서 악마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아 안 돼 - 그 사람은 나를 고문하러 오는 거야! 나? 난 기독교 신자도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 난 아일랜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난 잉글랜드 사람이거나, 프랑스 사람이거나 독일 사람이 되고 싶어.

이과 : 제발 독일 사람이라고는 하지마. 독일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헬렌 : 언니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뉴욕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과 : 글썄, 그럴지도 모르지. 언니를 선택한 건 언니가 너무 맑기 때문이야.

헬렌 : 맑다고? 이건 진창이나 마찬가지로야!

그레타: 내가 얼마나 맑은데?

이과 : 투명하단 뜻이야. 언니는 어느 쪽도 아니야. 또 어느 쪽도 될 수 있고. 언니는 정말 중립적이야 - 그래서 그 사람은 언니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라고.

헬렌 : 잠깐! 그 사람이라니,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과 : 좋아 - 그것이라고 하지.

그레타: 그래 그것이 맞겠다. 하지만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 - 원하지 않는다고!

헬렌 :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야?

그레타: 내가 잉글랜드에 온 후로 죽. 내가 처음 도착한 후 이 년 가까이.

헬렌 : 하지만 그건 거의

그레타: 십 오 년 전이었잖아.

이과 : (조용히) 그리고 언니는 오늘 밤 처음으로 밝히는 거구.

그레타: (잠깐 뜬눈 후) 사실 얘기한 적이 있긴 해. 처음에는 조지에게 말했어. 말하지 않는 건데. 그랬더니 조지가 의사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를 성모 마리아라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 - 하지만 이건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야.

헬렌 : 언니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레타: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 난 한 번에 부분적인 윤곽

만을 얻을 뿐이고 그걸 해석하는 건 전적으로 내게 달렸어. 엑스 무어 근처에서 미술 선생을 할 때었는데, 난 그 학교가 정말 싫었어. 잉글랜드 카톨릭계 학교였어. 그 학교에서는 나를 아일랜드 출신 미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여학생들은 내 앞에서 무슨 무슨 신부님은 엉터리 아일랜드 신부님이라고 말했어. 마치 일부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듯이, 그리고 마치 내가 신경을 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야. 어머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내 얘기만 하고 있구나. 조지는 나보고 맨날 내 얘기만 한대.

헬렌 : 형부는 신경 쓰지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레타: 첫 번째 휴가는 학기 중간 방학이어서 우린 일주일간 집을 빌렸어. 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미대를 졸업한 후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거든. 사실 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로였어. 그 집에는 어설픈게 생긴 문이 있었고, 골짜기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향 생각이 나게 했어. 안트립 계곡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파 : 높은 산 위에서부터 급 물살이 흐르는 계곡까지, 우린 감히 사냥할 생각도 못했어.

그레타: 난쟁이들이 무서워서.

헬렌 : 계속해 봐.

그레타: 거기서 머무는 동안 내내 비와 라디오와 함께 했어. 난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마음이 무척 불안했어. 마치 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어쨌든 결국 잠이 들었던 것 같아. 꿈을 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날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죽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기억나.

이파 : 우리가 있잖아!

그레타: 평생 그 때처럼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이파 :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살면서 얻지 못한 사랑에 죽음을 불러들

이는 거야.

여자가 묘비명으로 남게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레타: 애들이 있으니 이제는 자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길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어. 하지만 잉글랜드에 온 지 이 년이 지난 그 해에 계곡에 있는 그 집에서는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 때 그 일이 일어났어.

헬렌 : 왜?

그레타: 난 - 죽었어.

(갑자기 전화벨이 네 번 울린다. 여자들은 숨죽인 채 기다린다. 전화가 자동 응답 녹음으로 넘어 가는 소리가 크게 찰칵하고 들린다.)

목소리: (친밀한 관계인 듯한 남자) 잘 있었어, 나야. 나 돌아왔어. 전화 해줘.

(자동응답 장치가 찰칵 꺼진다. 헬렌이 멍하니 전화기 쪽을 쳐다 보며 동시에 그레타를 본다. 그녀는 비탄에 잠겨 있다.)

이과 : 왜 죽었다고 생각해?

그레타: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방은 사라지고 없었어.

(잠시 멈춘 후) 그리고 난 손을 뻗어 더듬어 봤지만 조지가 없었어. 난 완전히 혼자였어.

헬렌 : 언니 때문에 무서워졌어.

이과 : 방은 어땠는데?

그레타: 사방에 장미가 있었어. 커튼에도, 카펫에도, 침대보에도. 내가 그 방을 고른 건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벽에도 물론 장미가 없었어. 맹세컨대, 눈을 떴을 때 난 꿈꾸고 있지 않았어. 별빛 아래에 누워 있는 나의 얼굴 위로 밤바람이 불어왔어. 난 천국에 정말 가까이 있었어. 마치 산꼭대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별자리들이 아주 또렷하게 보였어. 난 커다란 절망감에 빠져

내 목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 채울 때까지 입을 벌려 크게 소리 질렀어. 그리고 난 그것이 내 몸을 빠져나가 별들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 정말 그랬어. 그리고 그 날 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

(이과와 헬렌이 동시에 말한다.)

이과 : 어떤 별자리를 봤어?

헬렌 : 왜 절망에 빠진 거야?

그레타: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겠어? 난 아는 게 없어, 단지 볼 따름이야!

이과 : 설명해 봐.

그레타: 일곱 개의 별이 잘 배열 돼 있었어.

이과 : 북두칠성이야! 언니는 아일랜드 시민군의 상징을 본 거야!

헬렌 : 아니야!

이과 : 맞아.

그레타: 그런 것 정말 싫어. 정말 싫다고.

헬렌 : 시민군과 전혀 상관없어. 묘성이었을 수도 있어. 아틀라스의 일곱 자매 말이야.

그레타: 그래. 사실 내가 본 게 묘성이었는지 확실치 않아.

이과 : 언니는 아일랜드 인이지 그리스인이 아니야. 언니가 본 건 북두칠성이라고.

헬렌 :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레타: 난 엑스무어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만 뒀어. 우린 런던으로 이사 했고... 난 아이를 가졌어.

이과 : 난 항상 언니가 자신을 내버린다는 생각을 했어.

그레타: 내버릴 자신도 없어. 내가 죽었다는 걸 잊지마. 난 외국어 강좌 몇 개와 성인들을 위한 읽고 쓰기 강의를 맡았어. 이민자들과 성인 문맹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이야. 대부분 아일랜드 노동자들과 혼란에 빠진 아시아계 어린이들이었어. 난 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어. 난 잉글랜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과 : 그래서 언니는 북두칠성을 무시했구나.

그레타: 난 아일랜드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쳤어.

헬렌 : 어디서 잘못 됐지?

그레타: 환영이 심해졌어. 그러니까 더 자주 나타났던 거야. 그리고 가끔씩 장난끼를 발휘하기도 했어. 난 새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면 환영들은 학교 운동회 날 내 뒤에 앉아 나를 향해 슬며시 웃고 있었어 -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앉아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환영들은 유명인들이거나 고인들이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도 안 써.

이과 : 그들이 학교 운동회 날 언니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레타: 로버트 케네디? 

이과 : 그래, 언니는 환각을 일으킨 거야.

그레타: 내 생각도 그래. 심지어 한 번은 폴 립슨도 봤다니까.

헬렌 : 그건 언니의 소망이야.

그레타: 알고 있어.

이과 : 그 사람은 엄마 아빠의 영웅이었어.

그레타: 그때 나를 괴롭히는 큰 종교적인 메시지를 받은 거야.

이과 :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

그레타: 교회에서 성찬을 가져다가 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과 : 글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같지는 않은데.

그레타: 말도 안 돼.

헬렌 : 그러지 마. 그것 때문에 뭘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야, 알잖아.

그레타: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미쳤다고? 넌 내가 교회를 돌아다니며



성찬빵을 훔쳐다가 나눠 줄 거라고 생각하니? 왜 모두 그렇게 고지식한지 몰라.

헬렌 : 그래서 언니 그런 짓 안 할 거지?

그레타: 물론 하지 않아.

(그레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다. 이파와 헬렌은 이런 증세를 눈치 채지 못한다.)

이파 : 언니는 잉글랜드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그레타: 그래 맞아. 난 1979년에 아일랜드를 떠났어. 하지만 잉글랜드에는 영영 도착하지 못했어. 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이파 : 그치만 왜 헬렌에겐 환영이 안 보이지? 헬렌이 잉글랜드에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는데.

헬렌 : 난 환영을 보지 않아. 섹스를 하지.

이파 : 하지만 언니는 남편이 있잖아!

헬렌 : 그건 다르지.

이파 : 아, 됐어. 그만해.

(그레타가 갑자기 통증으로 몸을 구부린다.)

그레타: 오 세상에!

이파 : 왜 그래?

그레타: 통증이 다시 시작됐어.

(그레타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헬렌이 재빨리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그레타에게 가져온다.)

이파 : 빈속에 브랜드를 마셔서 그런 거야.

그레타: 그게 아니야. 내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이야. 내가 벌을 받는 거라고.

오 제발 -

(그레타가 바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약을 꺼낸다.)

그레타: 내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나를 해치고 있는 거야.

헬렌 : 그것에 복종한다고?

그레타: 그래, 중요한 건 저항이야.

헬렌 : 의사를 불러야 할까?

그레타: 의사는 안 돼!

이과 :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헬렌 : 언니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과 : 약효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지?

(헬렌이 시계를 들여다본다.)

헬렌: 이십 분. 자, 여기 있어.

(헬렌이 의자에 있던 모포를 집어 이과와 둘이서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언니의 몸을 감싼다.)

치트라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있을 텐데.

이과 : 치트라가 누구야?

헬렌 : 이웃에 사는 사람이야. 가정의거든. 정말 훌륭한 의사야. 나에게 전부 다 설명해 줘. 인체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하지만 지금은 휴가라 고아에 가 있어.

그레타: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해선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마디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돼. 그렇게 했다간 전부 다 부인할 거야. 약속해. 한 마디도 않는다고.

헬렌 : 알았어.

이과 : 아빠가 원망스러워.

헬렌 :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이과 : 아빠는 언니에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잖아. 아빤 너나 나에게 언니에게 말하듯이 말해 본 적이 없어. 아빠는 내가 태어나면서 뇌

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셨어. 그리고 너는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하셨어.

그레타: 너희들에 대한 아빠의 생각은 옳았어.

(그레타가 고통으로 숨을 헐떡이며 소리친다.)

헬렌 : 언니 임신한 거 아니지?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레타: 수축이 일어나는 것 맞아. 제발 나 좀 잡아 줘. (통증이 지나갔지만 그레타는 여전히 숨을 헐떡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것 같아.

헬렌 : 무슨 일인데?

그레타: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어. 몇 년 만에 말야. 엑스무어에서 그것이 나를 떠나면서 내가 죽은 그 날 밤으로부터. 오늘밤에 목소리가 돌아온 거야. 아, 너무 행복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과 : 이제 언니가 더 이상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 맞지?

그레타: 내가 다시 돌아 왔다는 뜻이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라고.

헬렌 : 그런데 그게 왜 날 이렇게 놀라게 하지?

그레타: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 뿐이야.

이과 : 기다린다고?

그레타: 내가 무엇에 대해 준비돼 있는지 보기 위해서.

헬렌 :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언니는 어떻게 이 일이-

그레타: 그 목소리!

헬렌 : 난 그게 뭔지 몰라 - 그것이라고 부르자. 언니는 어떻게 그것이 좋다는 걸 알아? 응?

그레타: 그냥 알아. 내일 내가 엄마 아빠를 뵈러 가고 싶다는 것을 그냥 알아.

이과 : (헬렌에게) 너도 같거니?

헬렌 : 몰라.

이과 :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우리를 태워다 줄 수 있잖아.

헬렌 : 그래 알아. 하지만 여기서 할 일이 있어.

이과 : 나중에 하면 안 돼? 넌 너희 회사에서 꽤 거물이잖아.

그레타: 그리고 엘리쉬도 보고 싶어. 엘리쉬와 할 얘기가 있어.

헬렌 : 안 돼. 절대 안 돼.

이과 : 왜 엘리쉬가 보고 싶지?

그레타: 엘리쉬가 어디 있는지 아니?

헬렌 : 수녀원은 정말 지긋지긋해.

이과 : 엘리쉬는 꽤 옮겨 다녔어. 그 애가 도니브룩에 있을 때 가끔 만나곤 했어. 하지만 벨파스트로 옮긴 후로 연락이 끊겼어. 엄마가 주소를 가지고 계실 거야.

그레타: 너희들이 나를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헬렌 : 용서해 줘. 내 문제들도 있어.

이과 : 아까 전화한 사람 누구야?

헬렌 : 친구.

이과 :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헬렌 : 내가 가 버리면 그 사람 견디지 못할 거야.

이과 : 너 그 사람 떠날 거야?

헬렌 : 응. 그 남자 만 사람과 살고 있거든.

그레타: 그렇구나.

헬렌 : 아니 언니 몰라. 언니들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은 우리가 지적인 관계래.

이과 : 그러니까 너 그 남자랑 자는 건 아니구나?

헬렌 : 그 사람과 자는 않아 -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이과 : 또 그 케케묵은 얘기야. 그 남자는 너의 몸을 뺀 나머지를 원하는 거구나.

그레타: 머리로 그 짓을 하나 봐.

이과 : 나쁜 놈.

헬렌 :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았어.

이과 : 안지 얼마나 됐어?

헬렌 : 팔 년. 부인은 더 젊고, 더 예쁘지만 그 사람은 얘기를 나누려고 나를 찾아와. 그냥 무시하고 피해 버린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야.

이과 : 얼마나 더 나빠지는데?

헬렌 : 그 사람 내 직장 상사야.

이과 : 세상에.

헬렌 : 자 봐. 동정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그 사람은 고작 전화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밤 당신 보러 갈까? - 으음’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야. 하지만 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에 몸부림 쳐. 한 번은 마루 바닥을 기다시피 한 적도 있어.

그레타: 나 그 유령에게 다른 얘기도 했어.

헬렌 : 무슨 얘기?

그레타: 우리 가족을 해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과 : 그런 말 하기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것이 대답하지 않았어?

그레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단지 그 끔찍한 비명소리만 질렀어. 마치 아일랜드 전체가 나에게 소리치는 것처럼.

헬렌 : 아무래도 며칠 휴가를 내서 내일 언니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전화가 울린다. 헬렌이 초조하게 전화기를 바라본다. 전화벨 소리가 멈추었다 다시 울린다.)

이과 : 제발 전화 좀 받아. 안 받으면 내가 받는다.

헬렌 : 그 사람일까 봐 두려워.

(이과가 일어나 전화기를 든다.)

이과 : 여보세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기를 내려 놓는다.)

아빠가 심장 마비래.

(헬렌이 그레타를 바라본다.)

헬렌 : 언니와 언니의 그 빌어먹을 뻔슈야!

(어두워지면서 그레타에게만 조명이 비친다.)

그레타: 얼마 후, 모든 게 조용해졌을 때 난 문 앞에서 침대를 끌어 당겨 잠을 청했어. 그리고 한밤중에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곤 했어. 그 여자는 저 쪽에 떨면서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어. 그럼 난 그녀를 침대에 다시 눕혀야 했어. 그 일은 내가 열 세 살이던 여름에만 일어났고 다른 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리고 난 왜 그랬는지 결코 몰랐어.

(남아 있던 이과와 헬렌에게 조명이 비친다.)

이과 : 아빤 정말 멋있었어. 내 친구들 모두 아빠를 동경했다니까.

헬렌 : 아빠는 어부처럼 보이지 않았어. 난 아빠가 긴 장화를 신고 있는 모습을 좋아했어. 그 방수 바지 말야.

이과 : 에머 맥길리커디는 아빠가 헤밍웨이 같다고 말하곤 했어.

헬렌 : 언니들은 아빠가 엄마처럼 비쩍 마른 여자와 결혼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레타: 엄마가 그 해 여름에 읽고 있던 그 책은 빼고 말야. 그 책은 싸구려 포르노물이었어. 자기 아버지에게 강간당하는 소녀에 대한 근친 상간 이야기. 엄마는 그 책을 읽으면서 거의 미쳐 버렸어. 엄마는 소리지르며 뛰어 다녔어. ‘그 사람 어딤어? 대체 어디다 숨겨 놓은 거야?’

그 후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는 그 책을 빼앗아 태워 버렸어. 그래서 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됐

어. 어떤 이야기들은 음침하고, 어떤 이야기들은 밝아. 어떤 책이 마음 속에 남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야. 그 책에 대해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거든.

어느 날 아마 우연히 누군가 얘기를 해주거나 어떤 책을 무심코 집어들게 되면 목 뒤에 붙어 있는 숨털같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잦아들면서 그걸 깨닫게 돼. 난 정말 그렇게 마음이 환해지는 걸 느끼고 싶어.

### 제 3 장

어둠.

수녀들의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죽은 이들을 위한 새벽 미사). 노랫소리가 갑자기 중단되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마치 꿈속에서 들리듯 깊은 절망의 한숨 소리와 노랫소리.....

불이 들어온다.

벨파스트에 있는 한 수녀원의 현관. 이틀 후. 화창한 금요일. 자줏빛 천으로 감싼 십자가 수난상이 홀에 걸려 있다.

젊은 수녀가 활 모양을 그리면서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마루를 닦고 있다. 이때 그레타가 종이 가방에 옷을 한 묶음 담고 수녀를 향해 걸어간다.

그레타: 사촌을 만나러 왔어요. 엘리쉬 오틀 수녀예요.

(짧은 베일을 한 젊은 수련 수녀가 올려다본다. 그녀가 멍하니 쳐다본다.)

저는 그레타 쿡, 아니 플린이에요. 저희 엄마께서 고아원에 전해 달라고 이 옷을 주셨어요. 로즈. 엄마 이름은 로즈 플린이에요. 사촌이 여기 있다는 걸 엄마에게 들었어요. - 수녀님, 아 잠깐,

이름을 바꿨군요. 베타니, 맞아. 베타니 수녀예요.

(젊은 수녀가 일어나 양동이를 들고 서둘러 사라진다. 벨이 세 번 울린다.

그레타는 주위를 둘러본다. 기다린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고 한 여자가 뛰어 온다 - 힘이 넘친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으며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머리띠를 들렀지만 공기와 빛에 익숙지 않은 듯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다.)

엘리쉬: 어머니 세상에! 헬렌 맞니?

그레타: 아니, 나 그레타야.

엘리쉬: 그레타?

그레타: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라고 이 옷들을 보내셨어.

엘리쉬: 고마워. (짐꾸러미를 받아든다.) 미안해. 꼭 헬렌 같았어.

그레타: 왜?

엘리쉬: 헬렌이 돈을 보내거든.

그레타: 내 동생 헬렌이 너에게 돈을 보낸다고!

엘리쉬: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을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헬렌에게 근처에 오면 우리 수녀원을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거든. 그래서 헬렌이 온 거라고 생각했어. 여태까지 온 적은 없었지만 말야. 이모부 일은 정말 안됐어. 이모부를 위해 기도 드리고 있어. 만나 봤어?

그레타: 응, 어젯밤에 잠깐. 오늘 밤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아빠는 심장 박동기를 매달고 계셔서 말씀을 잘 못하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왔다는 건 아시지. 기회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디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엘리쉬: 물론이지. 이리 와서 여기 앉아. 오후 기도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



(둘은 조용한 홀을 건너 등받이가 있는 벤치로 간다.)

그러니까 언니가 살고 있는 곳이....?

그레타: 옥스퍼드. 남편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어.

엘리쉬: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파야. 아직도 틈에 살아?

그레타: 응. 이파는 이사하는 법이 없어.

엘리쉬: 내가 도니부룩의 수녀원에 있을 때 이파가 가끔 나를 만나러 왔어. 여러 해 전 일이긴 하지만.

그레타: 이파는 요즘 아주 바빠.

엘리쉬: 아이가 네 명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레타: 다섯이야.

엘리쉬: 언니는 몇 명이야?

그레타: 나는 둘. 아참 갓난아이가 하나 더 있어.

엘리쉬: 아기는 어디 있는데?

그레타: 집에서 유모가 돌보고 있어.

엘리쉬: 그리고 헬렌은 결혼 안 했지?

그레타: 응. 아주 바쁜가 봐. 여전히 돈 버느라.

엘리쉬: 오, 헬렌은 대단한 여자야. 어디 보자, 오브라이언 신부가 지금 옥스퍼드에 있는데 언니 혹시 아는 사람이야?

그레타: 아니 몰라. 난 모범적인 카톨릭 신자라고 할 수 없어.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

엘리쉬: 어찌다 그렇게 됐어?

그레타: 미안하지만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여기 온 것은 아니야.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 베타니 수녀.

엘리쉬: 그럼 왜 왔어?

그레타: 난 네가 사실과 다르게 나를 훌륭한 카톨릭 성인으로 잘못 지명할까봐 남편과 헤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 아이들도 개신교도로 자라고 있어.

엘리쉬: 아 -

그레타: 그리고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미사나 영성체 등에. 왜냐하면 학교에 있었거든. 난 사촌으로서 너를 보러 온 거야.

엘리쉬: 난 수녀야.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

그레타: 내 사촌이자 수녀로서, 왜냐하면 너는 유일하게 옳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니까 -

엘리쉬: 계속해 봐.

그레타: 담배가 있어야겠어.

엘리쉬: 어서 피워.

그레타: 왜 수녀복을 입지 않았니?

엘리쉬: 이젠 반드시 입지 않아도 돼.

그레타: 우습지? 난 적어도 베일 정도는 기대했는데. 그리고 머리 모양도 충격적이야.

엘리쉬: 특별한 행사에 입고 나가는 수녀 복과 베일이 있어.

그레타: 말 못하겠어. 미안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1982년 5월 30일 저녁, 폴락 마을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나는 -

(갑자기 수녀 복을 입고 베일을 쓴 수녀가 차를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나타난다. 다가오면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엘리쉬: 수녀님 거기 두세요. 고마워요.

(수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진다.)

엘리쉬: 차 마실래?

그레타: 고마워. 그런데 한 잔만 가지고 왔네?

엘리쉬: 언니 마시라고 가져온 거야.

(그레타가 찻잔을 받아 든다.)

겉코 변하지 않는 규율도 있어. 우리 수녀들은 방문객들과는 차를 마시지 않아.

그레타: 기억이 나....그래, 저녁이었어 - 아니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었어 - 다섯시쯤. 내 침대와 마주보고 걸려 있던 커튼 속에서 불꽃이 보였어. 불꽃은 점점 밝아졌어. 난 잠이 들지도 꿈을 꾸고 있지도 않았어. 나는 옆에 있는 전등을 키려고 스위치에 손을 뻗으면서도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 하지만 스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난 스위치를 찾기 위해 잠깐 눈을 돌렸지. 그런데 다시 돌아 봤을 때는 불꽃이 사라지고 없었어. 실망감을 느꼈던 게 기억 나. 그리고 난 전등을 켰어.

엘리쉬: 왜 실망했어?

그레타: 왜냐하면 내가 꿈쩍 않고 가만히 누워서 불꽃만 쳐다봤다면 그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나도 뭔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난 공포에 질려서 전등을 키려고 팔을 뻗고 말았던 거야. 난 전등을 켜 채 몇 시간 동안 누워서 불꽃이 있었던 곳을 응시하다가 일곱 시쯤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 부엌으로 내려가 차를 한 잔 만들었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거든. 전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 그래서 난 라디오를 켰어. 노래가 흘러 나오더니 이어서 한 남자가 말했다. ' 오순절 일요일(Pentecost Sunday)에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난 신앙이 없어. 아빠는 무신론자이고 남편은 마르크스주의자야. 그리고 나 자신도 오래 전에 카톨릭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언제인지 전혀 몰랐어 - 아직도 모르지만.

엘리쉬: 오순절은 부활절이 지나 일곱 번째 맞는 일요일이야.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축일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레타: 하지만 난 신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 불꽃은 낫선 방안 내 침대 발치에 여전히 걸려 있었어. 점심때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어. 난 그 집에서 두 번 다시 밤을 보낼 수가 없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모르겠어.

엘리쉬: 그 집은 어디 있는데?

그레타: 내가 말했잖아. 폴락이라구.

엘리쉬: 난 그 일이 다른 일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그레타: 관련이 있어.

엘리쉬: 그때 왜 언니 혼자 있었어?

그레타: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어. 남편은 아이를 원치 않았고 난 원했거든.  
이번 일은 살면서 세 번째로 겪은 이상한 경험이었어.

(엘리쉬가 계속하라고 부추긴다.)

두 번째는 올해 초 2월 2일에 일어났어.

엘리쉬: 정확히 축일이네.

그레타: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난 식탁 위에 있는 양초가 다 타버려서 다시 불을 붙이고 있었어. 내가 양초를 난로로 가져가 불을 붙이고 나서 촛대에 꽂았을 때, 그 불꽃이 확 나타났어. 불꽃은 길게 기른 내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고 갑자기 난 불의 장막에 둘러싸이고 말았어.

엘리쉬: 누가 그 불을 꺾어?

그레타: 뭐라고? - 아 남편이.

엘리쉬: 어떻게?

그레타: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감싸고 탁 쳤어. (손바닥을 친다.) 이렇게. 불이 붙자, 내 입에서는 이상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 소리도 불만큼이나 나를 놀라게 했어.

엘리쉬: 어떤 소리였는데?

그레타: (노래하듯이)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들리던 수녀들의 노래 소리를 흉내내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엘리쉬: 또 다른 사건이 있었지? 세 번이라고 했잖아.

그레타: 그래. 처음 사건은 1981년 11월에 있었어. 내 생일 전 삼일 동안

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난 너무 피곤한 나머지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었어. 난 방바닥에 있던 침낭에서 자야한다고 우겼어. 그게 자궁이니까 그 속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던 말이지. 별다른 뜻이 있어서 내가 신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시에 대해 난 약간 수치심마저 느끼거든.

엘리쉬: 그럼 왜 내게 얘기하는 거지? 차라리 의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레타: 의사에게 내가 종교적인 환영을 본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 할거고, 그걸로 끝이야. 하지만 수녀에게 종교적인 환영을 본다고 얘기하면 우리 둘 다 이상이 있는 셈이 될 테고, 그러면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겠지.

엘리쉬: 언니는 내가 이 수녀원의 원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레타: 몰랐는데 그렇다니 반갑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게 충고를 해줄 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난 세상 사람 절반이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한 기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에 구속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자유롭다는 것은 내게 무척 중요해. 그리고 -

엘리쉬: 그리고?

그레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생일날, 내 스물 네 번째 생일날,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경험을 하는 동안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창을 통해 다른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난 내 몸 안에서 아주 깊이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어. 방을 둘러보니 한 노인이 구석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난 혼자 말했어, '난 알고 있어'. 노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난 알고 있었어. 난 내 인생 전부가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엘리쉬: 언니가 본 건 악마야.

그레타: 난 금새 그걸 알았어. 그는 나이든 신부 같아 보였어.

(엘리쉬가 몸을 움직인다.)

그는 신부님처럼 긴 검은색 수단을 입고 있었고 턱수염을 뽀족하게 기르고 있었어. 난 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의자, 그러니까 안락 의자처럼 보이는 물체의 가장자리를 둘러보고 있었거든. 어쩌면 그게 유모차였을지도 몰라. 어쨌거나, 그 나이든 신부는 내 위로 쭉 다가오더니 내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 놓았어. 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가 베개로 누르고 있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 난 안간힘을 쓰고 저항해야 했어. 나를 짓누르는 암흑에 저항하고 있을 때 내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 - 상냥하고 따뜻한 목소리, "돌아누워. 돌아누워야 해'. 그래서 난 돌아누웠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내 앞에서 오,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 내 아래 저 멀리 우주에서 빛나는 지구를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난 등실 떠서 그 지구를 향해 떠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목소리, 내게 돌아누우라고 말한 그 목소리가 말했다. '자신을 내맡긴 채 시공을 뚫고 떨어져라.' 그래서 난 그 날 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 탄생을 다시 체험했다고 할 수도 있지.

엘리쉬: 그게 다야?

그레타: 다냐구?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커튼 속에 있던 불길을 봤지.

엘리쉬: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한 적 없어?

그레타: 아무에게도 - 남편만 빼고. 난 남편이 오두막으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그 불길에 대해 얘기했어.

엘리쉬: 형부는 뭐라고 했는데?

그레타: 난 정말 바보짓을 했어. 날름거리는 불길을 봤다는 것과 오순절 일요일인 걸 알게 되었다는 걸 남편한테 말했어. 바보같이.

엘리쉬: 남편은 반응이 어땠어?

그레타: 그 사람은 날 떠났어..... 질려서 내게서 도망쳐 버린 거야. - 뭘 기대하는데? 남편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야.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해방된 여성을 만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카톨릭 신비주의에 빠진 여자였던 거야.

엘리쉬: 그런데 왜 남편에게 얘기한 거야? 그때 나에게 올 수도 있었잖아!

그레타: 남편이 내게 카톨릭 신비주의에서 빠져 나오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나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 우린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다른 곳으로 갔어. 우린 엑스무어에 있는 어떤 집에 머물고 있었어. 그리고 난 죽었어.

엘리쉬: 죽었다고?

그레타: 그리고 슬픈 나머지 내 목소리가 나를 떠났어. 난 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어.

엘리쉬: 왜 그 전에 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레타: 두려워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 난 남편을 사랑했고 이런 문제를 의논할만한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다른 방에다 가두어 놓고 난 껍데기로만 살았던 거야. 알아? 우리가 엑스무어에서 돌아온 후, 난 의도적으로 임신을 했어. 남편이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말야.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야. 그게 나의 반응이었어!

엘리쉬: 왜 지금이야?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계기가 있는 거지?

그레타: 이틀 전, 런던에 있는 헬렌의 아파트에서 한 물체가 나에게 갑자기 떨어졌어. 애원하고 울부짖고 떨면서 내 침대 발치에 서 있었어. 난 그것이 뱀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뱀쉬가 아닌 것처럼 그것도 뱀쉬가 아니었어. 우리 둘 다 내가 본 것을 알아. 왜 우는 거야?

엘리쉬: 불빛 때문에 눈이 아파. 잠깐 실레할게. (엘리쉬가 일어서 코를 풀고 눈물을 닦는다.)

그레타: 난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해 왔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도와줘! 너 우는구나.

엘리쉬: 언니는 수녀가 되어야 했어.

그레타: 지금은 너무 늦었어.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줄 수 있어?

엘리쉬: 우리 엄마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이야. 엄마는 수녀원에 들어와야 했는데, 그 대신 댄스 파티에서 흥겹게 같이 춤을 춰 줄 일꾼은 잘 생겼지만 보잘것없는 남자랑 결혼했어.

그레타: 흥겨운 춤이라고? 그 남자는 이모 목을 조르려고 했잖아 - 난 그렇게 들었는데.

엘리쉬: 내가 태어나자 엄마는 잉글랜드로 가버렸어. 그래서 난 너희 엄마 손에 남겨졌지. 엄마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레타: 자립? 이모는 재혼했잖아.

엘리쉬: 한 남자가 엄마와 사랑에 빠졌고 청혼을 했지. 벨파스트에 있는 아기에 대해 알기 전이었어.

그레타: 그리고 갑자기 네가 나타난 거구나.

엘리쉬: 엄마는 아기,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새 남편에게 얘기했어. 그렇지만 그 남자는 엄마를 떠나지 않았어. 엄마가 재혼하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난 잉글랜드에 있는 엄마 집으로 보내졌어. 난 당연히 엄마를 목 졸라 죽이려 했던 그 남자를 닮았지. 언니 알고 있었어? 난 엄마의 전남편과 아주 똑같이 생겼어. 난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학교로 보내졌지. 그 후로 계속 수녀들과 생활하고 있어. 수녀님들은 내가 누굴 닮았든 전혀 신경을 안 써- 사실 내 몸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처음부터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들



었으니까. 그리고 수녀원의 일상과 질서를 좋아해. 난 은총과 계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어. 난 모든 계율을 지켜왔고 모든 교리를 읽었어. 그리고 여기가 정말 좋아. 오해는 하지만, 수녀원은 성문화된 계율의 지배를 받는 공화국이야. 난 이곳의 언어, 구조, 의식을 아주 좋아하지만 언니가 말한 것 같은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난 사순절 동안 금식 해 왔어. 언니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은총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난 며칠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누워 있었어. 사람들은 막달레나 마리아가 천당에서 가장 거룩한 여인이라고 말해. 그런데 구세주의 발아래 자신을 다 바친 나에 대한 보답으로 - (엘리쉬는 그 홀 안에 높이 걸려 있는 자주색 천으로 감싸진 물건을 가리킨다.) - 겨우 언니한테 이런 얘기나 듣다니. 그리고 언니는 내가 왜 우느냐고 물었지? 언니는 나를 놀리려고 여기 찾아 온 거야?

그레타: 엘리쉬, 난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엘리쉬: 베타니!

그레타: 내가 여기 온 건 네가 영적인 수행을 통해 내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난 네가 나를 위해 문을 열어 주기를 바랬어. 나를 내 삶의 한 가운데로 이끌어 줄 문 말이야. 그런데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말았구나. 미안해 - (그레타가 떠날 준비를 하자 엘리쉬가 막아선다.)

엘리쉬: 내가 주교 님께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랑 가깝거든.

그레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엘리쉬: 언니가 고해성사를 하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레타: 그게 뭐라고? 고해?

엘리쉬: 2차 로마 교황청회의에서, 사제를 직접 만나 죄를 고백하면 사면해 주도록 결정했어.

그레타: 난 내가 죄가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아. 규율을 몇 가지 어겼을 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엘리쉬: 언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수도 생활에서는 흔한 일이야.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는 것 뿐이야. 수도 생활은 언니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거든. 언니가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서두르라고 말해 주고 싶어. 언니가 성사를 다시 받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특히 영성체. 언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체를 받아야 해. 수녀원의 수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속에서 생활하는 수녀는 될 수 있을 거야. 세속 수녀들 중에는 결혼해서 대가족을 거느린 여자들도 많거든. 수녀원장들이야말로 영혼들을 거두는 일꾼들인 셈이지. 언니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레타: 내가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니?

엘리쉬: 언니는 선을 행하는 만큼 악을 불러들이고 있어.

그레타: 끔찍한 일어구나.

엘리쉬: 언니는 내가 수녀원에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거나 아니면 더 성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수녀원의 모든 수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거리가 멀어. 난 내 방문을 이중으로 잠근 후에야 잠자리에 들거든. 두렵기 때문에 난 주위를 온통 정보와 십자가로 둘러 싸 놓았어. 난 어두운 곳에서 잠자는 걸 싫어해. 심지어 내 베개 밑에다 조그만 야광 루르드의 성모상을 간직하고 있어.

그레타: 그래, 나도 그런 작은 조각상이 기억나. 사람들이 어릴 적에 침대에 놓아두곤 했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야광으로 된 것들 말야. 난 아이들이 자위행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라고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루르드의 성모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할 테니까. 머

리를 잘 쓴 거지.

엘리쉬: 아 - 언니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야, 선택받은 거라고. 언니는 직접 계시를 받았어. 하지만 마찬가지로 악마에게도 선택 당했어. 혼자 서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 언니가 내일 다시 여기 오면 주교님, 아니면 다른 사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 놓을게.

그레타: 왜 네가 아니라 신부님이야?

엘리쉬: 난 권한이 없어.

그레타: 여자라서?

엘리쉬: 그래.

그레타: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남자들이 우리의 역할을 빼앗아 버린 거구나?

엘리쉬: 아마 때가 되면 여성에 대한 교회의 이런 태도도 변할 거야. 무엇보다도, 성모 마리아가 천당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잖아. 어쨌든 이루어 졌고.

그레타: 이천 년은 긴 시간이야.

엘리쉬: 카톨릭 교회는 변화의 속도가 느려.

그레타: 난 시간이 없어.

엘리쉬: 규율을 어기는 건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야.

그레타: 그럼 안 된다고?

엘리쉬: 대신 규율에 복종해야 해. 규율이란 언니를 쓸어가 버릴 큰 힘을 막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순한 댐 같은 거야.

그레타: 난 미쳐버릴까 봐 정말 두려워.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엘리쉬: 그럼 내일 다시 나를 만나러 와.

그레타: 다시 올게, 그래, 내일.

(엘리쉬는 무척 기뻐한다. 둘이 포옹한다.)

하지만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에 참여하면. 남편과의 관계

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엘리쉬: 이혼은 할 수 없어.

그레타: 난 할 수 있어. 교회의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어.

엘리쉬: 언니는 결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레타: 남편과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엘리쉬: 언니의 영혼 안에서는 결혼한 적이 없어.

그레타: 세상에. 그런 표현은 내 전용 무기란 말이야. 넌 형이상학적이야.

엘리쉬: 언니는 교회 안에서 남편과 결혼해야 해. 그렇게 해야만 언니가 바라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어.

그레타: 평온 -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엘리쉬: 그럼 그 사람은 언니에게 적합한 남편이 아니지.

그레타: 좋아. 알았어. 아주 좋아. 하지만 애들은? 우리 애들이 사생아가 되는 건 아니지?

엘리쉬: 그 애들은 언니 아이들이 아니야. 하느님의 아이들이야.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해. 언니 스스로도 말했잖아, 언니의 인생의 꺾이기 방에서 결혼한 거라고. 고해까지는 긴 여정이야. 하지만 언니가 고해를 하면 아이들도 따를 거야. 아이들은 영세를 받아야 돼.  
(벨소리가 세 번 들린다.)

그레타: 가능한 일이 아니야.

엘리쉬: 그럼 내일 다시 와. 올 거야?

그레타: 병원에 가야해.

엘리쉬: 미리 말해 두지만 언니가 교회에 들어오는 건 언니 자신의 문제야. 곡예단이나 장터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생계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창조주를 만나면 그 때 이런 영적인 선물을 허비한 것에 대해 대답해야 할거야.

그레타: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린 오랫동안 단짝이었어. 살아 있다

는 것이 지금 내게는 고통스럽구나.

엘리쉬: 난 언니가 끔찍이 무서워.

(그레타가 돌아선다)

그레타: 잘 있어 엘리쉬 - 베타니. 베타니 수녀님.

엘리쉬: (소리치며) 기도할 때 언니 생각할게.

(큰 참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쉬는 자주색 천으로 싸인 조각상 앞에서 있다. 조각상을 응시한다. 머리를 떨어트리고 걸어간다.)

#### 제 4 장

벨파스트의 왕립 빅토리아 병원. 같은 날 저녁. 넓은 복도가 있다. 양쪽으로 그네 문 두 개가 마주보며 달려있고 그 사이에 벤치가 있다. 오른쪽 문은 마이클 플린이 누워 있는 심장병동으로 가는 문이다. 로즈 플린이 들어간다. 딸 이파와 동행하고 있다.

로즈 : (심장병동 밖에 있는 벤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끔찍한 기분이야. 너희 아빠가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난 웃었어. 내가 가서 누우라고 말했더니 삼십 분쯤 지나 다시 와서는 말했어. ‘아직도 나아지지 않아. 의사 좀 불러 줄 수 있겠어?’ 그러시더구나.

(둘은 벤치에 앉는다. 이파는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러나 로즈는 선 채로 있다.)

그래서 의사를 불렀어. 하지만 난 그때까지도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파 : 엄마는 알 수가 없었죠.

로즈 : 너,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지? 너희들 모두 다 나를 원망하지?

이과 : 아 엄마, 제발 좀 앉아 주세요?  
아무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집에 있었던 적이 없으시잖아요.  
(로즈가 앉는다.)

로즈 : 헬렌은 나를 원망하더라. 헬렌이 나더러 아빠에게 돈 얘기하지 말랬어. 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돈 얘긴 전혀 안 했어.

이과 : 걱정하지 마세요.

로즈 : 그레타는 뭐가 잘못 된 거니? 내가 그레타한테 어떻게 한 거니? 언니가 너더러 나에 대해서 얘기하든?

이과 : 언니는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로즈 : 남편 문제지, 그렇지?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난 조지가 처음부터 마땅치 않았어. 조지도 우리가 성에 안 찼어. 아이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질 않았잖니. 뭐가 잘못 된 거야?

이과 : 헛것이 보인대요.

로즈 : 그레타가? 대체 어떤 종류야?

이과 :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 이 얘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요. 그런데 헬렌의 아파트에서 어느 날 밤 벤쉬를 봤대요. 알잖아요 아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로즈 : 너 지금 농담하니?

이과 : 아니에요. 맹세코 사실이에요.

로즈 : 약 먹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과 : 그럼요. 난 다른 방에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로즈 : 벤쉬들은 정해진 가족들을 위해서만 운단다. 우리 가족에게 벤쉬가 붙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 너 아빠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과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가 자신들을 향해 복도를 따라 오고 있는

헬렌을 발견한다.)

엄마, 여기 헬렌이 와요. 내가 말한 것 얘기하지 마세요.

로즈 : (헬렌을 본다.) 너 저기 좀 볼래, 기가 막히게 차려 입고 나타났구나.

(헬렌이 멋진 맞춤 정장을 입고 칼라 백합 한 다발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온다.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세상에, 넌 항상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꼭 끌어야 하니. 오늘은 아빠를 위한 날이지 너를 위한 날이 아니다.

헬렌 : 초연해 보세요, 엄마. 상황에 좀 더 초연해지시라고요.

로즈 : 대체 무슨 뜻이냐?

헬렌 : 엄마는 아빠가 편찮으셔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나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로즈 : 여기 좀 봐. 그레타랑 벤쉬가 대체 어떻게 됐단 말이니?

헬렌 : 맙소사, 이과! 뭐든 엄마한테 말 안하고는 못 배기는 구나.

로즈 : 난 엄마다. 알 권리가 있어.

헬렌 : 언니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로즈 : 그래서 수녀원에 간 거구나. 그렇다면 정말로 아픈 거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제멋대로 였거든. 열 네 살이 된 후로는 미사에 참석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구나.

헬렌 : 우리 중에 누구도 열 네 살 이후에 미사에 참석한 사람 없어요. 언니 혼자만 그 사실을 시인했을 뿐이에요.

이과 : 사실이에요. 그레타 언니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언니는 규율을 어길 때마다 미리 선포를 했어요.

로즈 : 그래, 저기 안에 있는 저 남자를 닮았구나. 난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던단다. 너희 아빠는 타고난 반골이었거든!

헬렌 : 언니가 사순절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니 정말 우습지 않아요? 이번

엔 뭐가요, 우유를 안 마시나요?

로즈 : 빙고 게임을 그만 뒀다.

이과 : 사순절 지키느라 그 야단법석을 떨던 그레타 언니가 개신교도와 결혼한 거나, 아이들이 아무도 영세를 받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로즈 : 참, 아이들은 모두 영세를 받았다.

이과 : 그렇지 않아요. 언니가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로즈 : 아이들이 영세를 받았다는 걸 내가 확실히 해 줘야겠다. 내가 찬물 한 컵을 가지고 카톨릭 신자로 그 아이들 모두 영세를 해 줘.

헬렌 : 그게 언제였어요?

로즈 : 아,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나한테 온 적이 있어.

헬렌 : 그건 엄마가 친절을 남용한 거예요.

이과 : 저기 우리 매너스니?

로즈 : 세상에, 재 풍채 좀 보라.

(매너스가 부서진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매너스: 미안해요. 늦었어요. 포트러쉬에서 기차 타고 막 오는 길이에요.

(엄마와 누이들에게 차례로 키스를 한다.)

로즈 : 아이구 아들이, 좋은 외투 한 벌 장만해 줄게. 말만 해.

매너스: 외투는 싫어요. 난 괜찮아요. 친구 집에서 자고 있거든요.

헬렌 : 그래서 침낭을 입었구나!

매너스: 세상에, 헬렌 누나, 백 만 불 짜리 같아 보여.

이과 : 백만 불 짜리 맞아

로즈 : 그만 들 해라.

매너스: 예금 통장으로 소매를 만들어 붙이지 그랬어.

(헬렌이 매너스를 때린다.)

헬렌 : 그만 뒤.



매너스: 아빠는 어떠세요?

로즈 : 아직 숨은 쉬고 있다.

매너스: 블라바스키 여사는 어디 계세요?

헬렌 : 누구?

매너스: 그레타 누나.

(헬렌이 매너스를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이파 : 지금 오고 있어 - 하지만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나도 몰라.

로즈 : 사촌 엘리쉬도 만나고 고아들에게 내 가게에 있던 옷가지들도 갖다 줄 겸해서 수녀원에 갔어.

매너스: 아 그렇구나. 고아들에게 줄 옷가지 - 엄마의 양심의 돈.

로즈 : 효력이 있을 거다.

헬렌 : 너 요새 술 마시니?

매너스: 저기, 누나 방에 있는 벤취 이야기가 도대체 뭐야?

(헬렌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이파를 바라본다.)

헬렌 : 이파! (매너스에게) 제발 그레타에게 아는 척 하지 마라.

매너스: 술만 좀 마셨다 하면 만날 그 소리야!

이파 : (복도를 내다보며) 그레타가 오고 있어.

로즈 : 잘 들어, 아빠에게는 그레타 문제 언급하지 마라. 그레타가 정신병원에 있었다, 남편이 떠나버렸다, 아이들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말이다. 그레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헬렌 : 그리고 절대 벤취 얘기도 해서는 안 돼.

매너스: 안 할게요.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서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다시 되풀이한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물을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로즈 :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시길.

매너스: 용서하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요, 엄마.

내가 하느님을 용서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레타가 도착한다.)

그레타: 안녕.

(매너스를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그에게 키스를 한다.)

로즈 : 잘 다녀왔니?

그레타: 네.

로즈 : 옷은 맘에 들어 하든?

그레타: 네. 아주 훌륭했어요.

로즈 : 유아 영세복은 반응이 어떻든?

그레타: 네. 그것도 아주 좋아했어요.

로즈 : 나에 대해서도 물어보든?

그레타: 네. 수녀님들이 아빠를 위해 기도 드리고 있어요.

로즈 : 정말 친절하기도 하지.

그레타: 나를 만나서 반가와 하는 것 같았어요. 차 한 잔 주세요.

(간호사인 에머 맥길리커디가 플라스틱으로 된 그네 문을 연 채 잡고 있다.)

에머 : 플린 부인, 지금 들어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돼요.

로즈 : 감사합니다. 헬렌, 나랑 같이 들어가자. 어제 아빠가 네 얘기를 물으시더라.

(둘이 플라스틱 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레타, 매너스, 이파만 남겨진다.)

이파 : 그렇지, 우리의 헬렌. 루르드의 성수.

아빠는 그렇게 부르셨지.

매너스: 칭찬의 말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아빠는 무신론자거든. 잘 지냈어, 누나?

그레타: 아주 잘 지냈다.

(그레타가 큰 한숨을 내쉰다.)

간호사가 그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파를 쳐다본다.

에머 맥길리커디는 병원 수간호사들의 복장인 빨간색 유니폼에 풀 먹인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흰색 캡을 쓰고 있다. 병실의 일반 간호사들은 흰색과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에머는 시골 역 양을 사용한다. 이파가 그녀를 올려다본다.)

이파 : 에머 맥길리커디?

에머 : 이파 플린! 어머니, 저기 누워 계신 분이 너희 아빠 시니?

이파 : 5, 6 학년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매너스: 오줌 누러 갔다올게.

(그가 나간다.)

에머 : 너희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파 : 넌 언제나 간호사가 되고 싶어했어.

에머 : 맞아. 벨파스트로 가는 방법 중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 뿐이었어.

이파 : 너희 가족들 여전히 개 경주에 나가니?

에머 : 어 그래, 지금은 그레이 하운드를 서너 마리 가지고 있어.

이파 : 돈벌이가 되니?

에머 : 이것도 사업이야. 진짜로 바르게 행동하는 게 뭔지 알려면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어야 해.

이파 : 그리고 간호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에머 : 난 간호사가 좋아. 그래도 출산 병동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야. 거긴 마치 작은 아기들을 맞이하는 공항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영아를 위한 공항. 난 아기들이 정말 좋아. 아기가 최고야.

이파 : 너는 아직 아기가 없니?

에머 : 없어. 글썸, 난 아기를 가질 만큼 잘나지 못했나봐. 남편이 아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난데없이 딴 여자랑 결혼하더니만 그 사  
이에선 아이들을 낳더구나.

이과 : 잘나고 못난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에머 : 그럴까?

이과 : 아이를 원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남자에게는 비밀로 하고 아  
기를 가져야 돼.

에머 : 우리 아버지가 길에서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셨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한  
테 손자를 낳아드리지 않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몇 년 동  
안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아기는 갖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느닷없  
이 좋은 가문 집 딸과 결혼하더니 아이를 세 명이나 낳더라.

이과 :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마. 너희 가족도 훌륭해 - 그냥 임신해 버려!  
넌 할 수 있어 - 간호사잖아.

에머 : 난 내 아이를 원하는 남자를 찾을 거야.

이과 : 먼저 수습 리 도망부터 갈 걸.

에머 : 나중에 보자.

(에머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서는 다른 쪽에 있는 그네문 안으로  
간다. 이 문은 심장병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과 : 그러게 저 쪼그만 애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 에  
머 기억나?

그레타: 어렵쪄이.

이과 : 에머한테 날 돌봐 달라고 할 마음 없어. 죽어간다고 해도 말야.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고향의 추수')

그레타: 아빠가 위독하시니?

이과 : 그런 뜻이 아냐. 내 말은 내가 죽어 간다고 해도 말야. 아빠 얘기  
가 아니야.

엄마가 그러는데 사소한 발작이래.

(헬렌이 그네 문을 뒤로하고 온다. 언니들을 차례로 본다.)

심한 충격은 아니래.

그레타: 들어봐. 음악 소리야.

헬렌 : 우리한테도 다 들려, 언니.

(이과가 생각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선다.)

이과 : (쳐다보며) 으응. 우리 매너스야. 저기 현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

헬렌 : 바이올린? 매너스가?

그레타: 저 곡, 이름이 뭐니?

이과 : ‘고향의 추수’지 아마? 매너스를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을 거야.

헬렌 : 동성애자야.

그레타: (혼잣말로) 오 하느님. 그랬구나.

이과 : 아,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야.

그레타: (혼잣말로) 집. 물론. 여기가 바로 그 곳이야.

헬렌 : 그렇지 않아. 매너스는 진짜 호모라고.

이과 : 난 안 믿어.

헬렌 : 런던에 있는 내 아파트에 이 친구 저 친구 데리고 자주 나타나거든. 대부분 음악가야. 여자 친구를 사귀는 적도 한 번 있어. 미국인 기자였어. 그 여자는 완전히 남자를 꼼짝 못하게 기죽이는 드센 여자였어. 호모로 다시 돌아가니까 오히려 반갑더라구.

이과 : 아, 둘 다 아닐지도 몰라.

그레타: 난 매너스가 자신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알게 되면 아주 막강해 질 거야.

이과 : 아직 어려. 그 뿐이야.

헬렌 : 언니 둘 다 가서 아빠 뵙고 와.

이과 : 어떠시니?

(헬렌이 머리를 가로짓는다.)

이파와 그레타가 들어가고 헬렌이 앉아서 기다린다.)

등장 : 매너스가 춤곡 '고향의 추수'의 마지막 부분을 자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한 여자 환자가 분홍색 퀼트로 된 가운을 입고 느리게 릴 춤을 추고 매너스가 그 주위를 돈다. 임신해서 배가 크게 부풀어오르지 않았더라면 아주 예쁘고 분위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운을 입은 다른 환자들과 병원 방문객들이 연주자와 소녀 주위로 모여든다. 갑자기 그녀가 그 장면을 깨고 헬렌에게로 달려간다.

멜다 : 담배 있으세요?

헬렌 : 없어요. 그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

(매너스가 매우 부드럽게 연주를 계속한다.)

멜다 : 오 저기 좀 봐, 담배꽂초가 있네. (바닥에서 담배꽂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 난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해요. 당신은 어때요?

헬렌 : 춤을 아주 잘 추네요.

멜다 : 춤추러 안 가세요?

헬렌 : 별로. 너무 바빠서요.

멜다 : 난 자주 가요. 난 플라자를 좋아해요. 거긴 언제나 뱃사람들이 있어요. 플라자에 가면 난 아주 인기가 좋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헬렌이 머리를 젖는다.)

내 치아가 어둠 속에서 빛나기 때문이죠. 한번은 어떤 선원이 내 이를 쳐서 망가뜨렸거든요. 그런데 새 이가 디스코장에서 빛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녀가 이를 드러내 보인다.) 아, 잘 보시려면 저 이상야릇한 불빛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다른 것이 그녀의 주의를 끈다.)

저기 사랑스런 경찰 아저씨가 있네요. 아마 그 사람은 담배꽂초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급히 나간다.

에머가 다시 나타난다.)

에머 : (뒤쫓아 부르며) 멜다! 네 병동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좀 가만 내버려 둬, 착하지.

헬렌 : 여기 바로 출산 병동이 있는 지 몰랐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에머 : 저 애는 출산 병동에서 온 게 아니야 - 바나나 병동에서 왔어.

헬렌 : 바나나 병동?

에머 : 미쳤거든. 매일 밤마다 여기 와서 남자들을 쫓아 다녀.

(헬렌의 시선이 멜다를 쫓아간다.)

이 년 만에 세 번째 임신이야. 병원에서는 저 아이에게서 아기를  
계속 떼어놓고 있어.

헬렌 : 왜?

에머 : 아기를 돌볼 수가 없거든.

(몇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에 박수를 보낸다.)

남자 목소리 : (무대 뒤에서) 여기 간호사님, 저 반 잉글랜드 적인 음악은  
언제면 그칠 겁니까!

두 번째 목소리 : (무대 뒤에서) '낮은 오렌지 피리' 연주해 주세요!

매너스: (다가서며) 이 곡은 반 잉글랜드적인 게 아니라 아일랜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음악이에요. 그리고 '낮은 오렌지 피리'도 연주  
해드릴 수 있어요.

에머 : 연주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만 연주하라고 해야  
겠어요. 환자들 중에 지금 자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중이 빠져나간다. 에머도 그들과 함께 나간다.)

헬렌 : 언제부터 바이올린 연주했니?

매너스: 기분 전환으로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싶었거든.

헬렌 : 네가 다음엔 우리들을 고향 글라카모라로 데리고 가겠구나.

매너스: 글라카모라? 그게 대체 어딴데?

헬렌 : 나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매너스: 누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구나.

헬렌 : 우리는 세계 시민 아니니?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그랬잖아.

매너스: 내가 아일랜드 촌놈이나 아일랜드 비밀 결사대의 줄개로 취급당할 때는 세계 시민이라고 전혀 안 느껴져.

헬렌 :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어. 민속 음악만 전수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작곡해 봐.

매너스: 음악은 사람들 내면에서 나무처럼 자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

헬렌 : 민족 같은 건 좀 초월할 수 없니? 가족 중에 예술가 한 사람 만들어 보자.

매너스: 모든 위대한 예술 뒤에는 민족이 있는 법이야.

헬렌 : 뒤쪽 아주 멀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매너스: 누나는 어때?

헬렌 : 난 너무 상업적이라고 말해 두자.

매너스: 아빠는 우리에게서 본질을 빼앗아 버렸어. 아빠는 우리를 개신교도들처럼 키우셨단 말이야.

헬렌 : 하지만 엄마가 그걸 보충해 주셨잖니.

매너스: 난 지금 음악과 언어와 문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전통적이다, 이건 국수주의적이다, 이러시는 바람에 우린 전혀 배우지를 못했잖아. 이제 나는 그걸 되찾으려고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있어.

헬렌 : 그게 최선이었어. 아빠는 우리가 반골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어.



매너스: 그건 무시였어.

헬렌 : 적절한 처사였어.

매너스: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

(이과가 나타난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과 : 아빠는 화장을 원하셔.

매너스: 문제될 게 뭐 있어? 어쨌든 돌아가신 다음의 얘가지.

헬렌 : 어서 건너가 아빠를 만나 봐. 방문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매너스가 들어간다. 이과가 자리에 앉는다.)

이과 :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니?

헬렌 : 무슨 생각?

이과 : 아빠 말이야, 그리고 그레타 언니. 그게 벤쉬였을까?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니?

헬렌 : 아마도.

이과 : 너 관심 없어?

헬렌 : 지난 오 년 간 이미 아빠는 몸이 약해 지셨어.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여자가 그걸 미는 광경이 보여. 이런 모습이 난 너무 혼란스러워.

이과 : 그게 뭔데.

헬렌 :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싫어. 차라리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이과 :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 너 진심이 아니지?

헬렌 : 진심이야. 엄마는 그렇게 되면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야!

이과 :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도 외로워.

헬렌 : 그런 생각하지도 마, 엄마는 잘만 사실 거야.

이과 : 그리고 그레타에 대해서는?

헬렌 : 그레타?

이과 : 언니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

헬렌 :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과 : 그렇지 않아. 언니는 아주 대담해 지고 있어.  
 (문이 열리고 에머가 그 사이로 걸어와 그레타에게 얘기한다. 헬렌이 이과의 말을 가로막는다.)

에머 : 그 사람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왜, 우리 말라치와 결혼하지 그러니?'라고. 난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은 그 여자와 사는 게 너무 불행해. 그 여잔 진짜 왕비 병이야. 손 하나 까딱 안 해. 내가 애들을 돌봐 준다니까.

그레타: 어쨌든 그 사람이 선택했잖아.

에머 :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사람이 선택했어. 그 여자는 어디든 가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골라내는 재주가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해도 마찬가지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짝짜게 접근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레타: 그럼 그 사람이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네.

에머 : 하지만 한 번은, 큰 수술을 앞두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려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에머, 우리 마누라 임신했어, 이 여자한테서 나 좀 구해 주라.'

이과 :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에머 : 나도 몰라. 난 한 번도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

이과 : 정말 안됐다 - 그 사람은 너를 사랑했던 거야.

에머 : 그러니?

헬렌 : 그 사람 의사야?  
 (에머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 병원에 있어?  
 (에머가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레타: 거기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이과 : 그레타!

그레타: 짝 물지 그랬어.

에머 : 짝 물어?

그레타: 짝 물 수 있게 교합이 잘 맞지 않았구나.

에머 : 치과에 가야 한단 얘기야?

(이과가 헬렌의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헬렌 : 그런 뜻이 아니야.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할 필요 없어, 그레타 언니.

그레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에머 : 그래 무슨 뜻인데?

그레타: 넌 뭔가를 마무리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야.

(비상벨이 울린다. 에머가 통기듯 일어난다.)

이과 : 무슨 소리야?

헬렌 : 무슨 일이 생겼어?

에머 : 나, 가야 해.

(에머가 달려간다. 이중문을 통해 간호사가 나타나 그 뒤를 따른다. 의사 몇 명이 급히 지나간다. 로즈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나온다.)

로즈 : 응급 심장 수술시 울리는 벨이야. 아빠 경우에도 그랬어.

이과 : 방탄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로즈 : 충격이 있었겠지.

이과 : (쳐다보며) 한 번이 아닌가봐요.

헬렌 : 무장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그레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로즈 : 암살이 일어나면 항상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오거든. 그리고 누군가 죽을 경우에는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것도 있고.

헬렌 : 총잡이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진 않겠지?

로즈 : 안 온다고? 끝장을 내려고 들어올 가능성도 많을 거야. 특히 신분

이 노출되었을 때는 말야.

(헬렌이 발끝을 들고 일어선다. 자신이 들여다보고 있던 방향을 향해 조금 걸어간다.)

헬렌 : (미국 억양으로) 실례합니다.

폴 : 안녕하세요.

(그는 제복을 입은 경관이다.)

헬렌 : (가까이 다가서며)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출발하는 게 안전할까요?

폴 : 어디에 주차 하셨습니까?

헬렌 : 입구에서 세 번째 칸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폴 : 그렇습니다. 어느 입구죠?

헬렌 : 교회 맞은 편이에요. 왜요?  
(로즈가 다가온다.)

로즈 : 무슨 일이죠? 곧 집으로 가야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것에 실러 오네요.

헬렌 : 괜찮아요, 엄마. 내가 처리할게요.

폴 : (로즈에게) 어떤 사람이 도노걸가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아홉 명이 사망했어요. 도박장에 대한 보복입니다.

로즈 : 맏소사. 우리 쪽 사람이야.

헬렌 : 우리 쪽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을 해치우고 있는 거라구요!

(로즈가 이과와 그레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폴 : 당신 어머니십니까?

헬렌 : 그래요.

폴 : 미국인이신 줄 알았는데-

헬렌 : 난 잉글랜드에 살아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죠.

폴 : 이런 맛 저런 맛을 합해 놓은 종합 사탕이시네요.

헬렌 : 종합 사탕 맛을 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폴 : 집이 어느 방향이십니까?

헬렌 : 북부 벨파스트요.

폴 : 집에 가서도 문제 없겠네요. 차가 주차한 곳에 그대로 있다면 요.

헬렌 :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폴 : 군과 경찰이 십 오 분 마다 병원 입구 바깥쪽에서 공동 순찰을 돕니다. 경찰 차 두 대 군용차 두 대 해서 차량이 모두 네 대입니다. 마지막 차가 지나가면 갱들이 바로 움직이거든요. 차안에 아무도 없었다면 돌아갈 때는 주차해 둔 곳에 차가 없을 겁니다.

헬렌 : 감사합니다.

폴 : 천만 예요.  
(폴이 걸어 나간다. 헬렌이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로 걸어간다.)

헬렌 : 어째서 아무도 갱 얘기는 안 했지?

로즈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밤에 이쪽으로 와 본 적이 없는 걸.

이과 : 그 경찰관이 일부러 너한테 겁주는 거야.

헬렌 : 그렇담 성공이네. 난 차가 걱정 돼.

이과 : 보험에 들었으니 걱정 없어.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면 돼.

헬렌 : (걸어가며) 가서 아빠에게 간다고 인사해. 금방 갈 거니까.

로즈 : 헬렌 말이 맞다. 우리 집에 가야 돼. 이 근처에서 밤늦게 나다니는 건 좋지 않아. 아빠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는 게 좋겠다. 아무도 차 얘기나 도박장 얘기, 총격 사건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이과 : 말 안 할게요, 아셨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게요. 엄마가 가서서 인사하고 오세요.  
(로즈가 병동으로 들어간다.)

그레타: 몇 명이나 죽었니?

이과 : 아홉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레타: 지금 들리는 것도 ‘고향의 추수’야?

이과 : 이제 진정 좀 해. 조금 있으면 여기서 나갈 거야.

그레타: 이 일도 내가 했니? 내가 이곳으로 죽음을 몰고 온 거니?

이과 : 오, 정말 그만 좀 해!  
(그레타가 일어선다.)  
어디 가?

그레타: 멀리. 내가 가버리면 죽음도 나랑 함께 갈 테니 너희들도 평온을 되찾을 거야.

이과 : (그레타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며) 헬렌! 헬렌!  
(이들을 향해 복도를 급히 걸어오는 헬렌의 발자국 소리)  
언니를 집으로 데려 가야겠어.  
(헬렌이 들어온다.)

헬렌 : 나쁜 소식이 더 있어,

이과 : 말하지 마. 차가 없구나.

헬렌 : 아니, 차는 그대로 있어. 앞 유리가 없어.  
(그레타가 빠져나가려고 애쓴다.)

그레타: 나 좀 놔 줘. 내 잘못이다! 난 죽음이야. 내가 말하잖아.

헬렌 : 앞좌석이 눈으로 덮였어.

이과 : 지금 눈 오니?

헬렌 : 아니. 비가 오고 있어. 깨진 유리 때문이지 뭐.

이과 : 그레타!  
(그레타가 복도를 따라 급히 나간다. 이과가 그레타를 쫓고 헬렌이 그 뒤를 따른다.)

## 제 5 장

다음 날. 가게 뒤 햇빛 가득한 뜰. 이파와 엄마 로즈가 털실을 감는다. 이파가 손을 내밀고 엄마가 실을 감는다.

이파 :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로즈 : 아빠가 낚시할 때 이게 있었으면 하시더라.

이파 : 이제 낚시하러 못 가지잖아요.

로즈 : 나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짜지 않으면 아빠는 자신 이 회복되는 걸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파 : 아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큰 고기가 물면 물 속에 빠질 거예요. 발에 힘이 없으시다구요.

로즈 : 나도 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니.

이파 : 실이 아주 매끄럽네요.

로즈 : 그렇고 말고. 최상급인 걸.

이파 : 할 일이 많으세요?

(의자 옆에 있는 상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로즈 : 저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돼.

이파 : 장사도 잘 되고요.

로즈 : 그래, 내 경험에 비춰 보면 필요할 땐 항상 돈이 들어오더구나. 그리고 부활절에는 영세를 많이 받잖니. 또 오월에는 첫영성체들을 많이 하고.

이파 : 그럼 왜 유아 영세 복이랑 영세 모자를 돌려보내세요?

로즈 : 값을 너무 많이 요구하잖니.

이파 : 하지만 수공이 많이 들잖아요.

로즈 : 요구하는 가격을 사람들이 지불하려 하지 않는데 수공 얘기 할 필요도 없다. 모웬 부인은 개신교도인데 유아 영세 복은 기계로 짜지 만 가격이 싸잖니. 그러니까 난 캐슬린네 물건보다 더 빨리 팔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모웬 부인한테 주문하련다.

이과 : 다 돌려보내시면 안돼요. 몇 개는 남기세요. 난 그 아줌마가 남자 아이들 용으로 짜 준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십 오 년 전에 만든 건데 두요.

로즈 : (한숨을 쉬며) 그렇게 오래 됐니?

(헬렌이 집 주위에 나타난다. 밖에 나가 있던 참이어서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다.)

헬렌 : 거기 밖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과 :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로즈 : 난 가게에만 갇혀 있었잖니.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날도 화창하고 해서.

헬렌 : 잔디는 어떻게 된 거예요?

로즈 : 내가 잔디 위로 포장을 해 버렸다. 너희 아빠도 정원을 가꿀 수가 없고 매너스도 필요할 때마다 집에 없잖니.

이과 : 차는 이상 없어?

헬렌 : 렌터카 회사로 바로 몰고 가서 설명했어. 어제 공항에서 이 차를 빌렸거든. 근데 운수 사납게도 앞 유리창이 박살나고 스테레오까지 도난 당했잖아. 직원이 전혀 놀라는 눈치가 아니야. 그 사람이 어디에다 주차했냐고 묻더라. 내가 '병원 바로 바깥, 입구에서 세 번째 칸예요.'하고 말했지.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과 : 뭐랬는데?

헬렌 : 왕립 병원에 가는 줄 알았다면 장갑차를 줄 걸 그랬대.

로즈 : 상황이 그렇게 나쁘니?

이과 : 그럼 오늘밤에 우리 뭐하지?

헬렌 : 풀이 우리가 교대로 차안에 있어야 한대.

이과 : 풀이?



헬렌 : 어젯밤 우리를 도와 준 경찰관이 폴 와터슨이란 사람이야. 어쨌든  
난 지금 밝은 빨간색 로버를 가져 왔는데, 내가 처음 렌트한 것  
보다 더 커. 작은 차는 남아있는 게 없대. 앞으로 가서 한 번  
봐.

이과 : 조금 있다가 볼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로즈 : 가서 나 대신 전화 좀 받아라. 아마 병원일 거다.  
(헬렌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 쪼그만 맥길리커디 간호사가 전화한다고 했어. 끔찍이도 친절  
한 여자 말야.

이과 : 에머 말이야? 우리 매너스한테 눈을 뺏긴 것 같던데.

로즈 : 내 아들한테? 치-,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상냥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더구나. 이 교구 안에 새 초등학교 짓고 있는 거 알지. 그  
학교 교복을 계약했으면 좋겠는데.

이과 : 가능성이 있으세요?

로즈 : 맥코트 박사의 질녀도 또 응찰을 했더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계약을 모두 가져갔으니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얘기해 줬다. 그리고 계약을 딸 수 있게 이 교구에 있는 여러 사  
제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놨다. 그러니 이번엔 당연히 내 차  
레다.

이과 : 왜 전에는 학교와 계약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어요?

로즈 : 왜냐하면 매번 응찰할 때마다 너희 아빠가 종교 차별을 없앤 통합  
학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비난하는 편지를 써 보내서 계약을 못  
따곤 했단다. 고등학교의 수녀원장님이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  
하더구나. ‘플린 여사, 맥의 남편께서 저희 학교의 존재를 믿지 않  
으시기 때문에 여사께 교복을 주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틀림없이  
너희 아빠는 일부러 그러신 거야.

이과 : 왜 아빠와 결혼하셨어요?

로즈 : 무슨 질문이 그러니?

이과 : 아빠와 마찰이 많으시잖아요.

로즈 : 언제나 똑같은 수는 없잖니.

(헬렌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난다.)

이과 : 아빠는 폴스 마을에서는 첫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성모의 자녀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똑 같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 엄마는 비슷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로즈가 헬렌의 얼굴을 본다. 이과도 얼굴을 돌려 헬렌을 본다. 로즈가 실타래를 떨어뜨린다.)

로즈 : 무슨 일이니? 너희 아빠니?

헬렌 : 그레타가 체포 됐어요.

로즈 : 아이구 성모 마리아님. 무슨 짓을 했는데?

헬렌 : 절도래요.

로즈 : 내 딸이 도둑이라고! 그레타가? 믿을 수 없어.

이과 : 언니가 뭘 어쨌는데?

헬렌 : 오늘 오후쯤에 그레타 언니가 클로나드 수도원에 가서 독창 미사 중에 측면 재단에 있던 성배를 집어서 사람들이 눈치 채기 전에 그걸 들고 나갔어.

로즈 : 아이구 하느님 맙소사!

헬렌 : 그런 다음 그 성배를 들고 버스를 타고서 시내 중심 가까지 갔대.

로즈 : 제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

헬렌 : 성배에는 영성체 빵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언니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대.

이과 : 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헬렌 : 그래. 시내 곳곳에서 말야. 언니에게서 영성체 빵을 얻으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주었다는 거야.

이과 :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 그러지 않겠다고 말해 놓고선.  
헬렌 :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로즈 : 뭐라고? 너희들 알고 있었니? 둘 다 알고 있었어? 도저히 믿기지  
가 않는다!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언니가 무슨 짓  
을 할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혼자 나가게 내버려뒀구나.  
이과 : 우리에게는 혼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로즈 : 지금 어디 있니?  
헬렌 : 경찰서에 있어요.  
로즈 : 성배를 훔친 죄로?  
헬렌 : 경찰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대요.  
로즈 : 오 예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여.  
헬렌 : 언니가 잉글랜드의 정신 병원에 있다가 아빠가 심장병으로 왕립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간 나와 있는 거라고 경찰에 얘기했  
어요. 언니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해 줬더니 기꺼이 언  
니를 풀어 주었어요.  
이과 : 언니는 괜찮니?  
헬렌 : 경찰에서 그러는데 언니가 정신이 약간 나가 있는 상태로 그 성배  
가 마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썼던 성배나 되는 듯이 그걸  
들고 앉아 있었대요.  
이과 : 오, 하느님께서 그레타 언니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도 그걸 봤더라  
면 좋았을 걸.  
헬렌 : 잉글랜드에서는 정신이상이면 가두고 정치적인 일이면 보내 주  
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정치적인 일이면 가두고 정신이상이면 보내  
줘.  
이과 : 그레타 언니가 미쳤다고 생각해?  
헬렌 :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걸.  
로즈 : 그래 지금은 어디 있다니?

헬렌 : 경찰이 금방 풀어 주겠대요.

이과 : 중요한 건 -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헬렌 : 나도 알아, 신문에 나면 끝장이지.

로즈 : 망하는 거야! 이 지역에선 카톨릭 교도가 그보다 더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죽어 없어지는 판인데! 아주 망했어!

이과 : 거기 기자들이 있었어?

헬렌 : 모르지 뭐.

이과 : 텔레그래프지 조간 판이 언제 도착해?

로즈 : 신문이 무슨 상관이야 - 이미 타격을 입을 대로 입었는데. 신부님께서서 날 싫어하실 거야!

헬렌 : 경찰이 캠벨 박사에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해두었어. 하지만 신문에 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로즈 : 캠벨 박사가 누구니?

헬렌 : 잉글랜드에 있는 언니의 담당 정신과 의사예요. 지방 신문에만 날 수도 있어요.

이과 : 최악은 아니군.

로즈 : 최악은 아니라고?

헬렌 : 보세요, 엄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 하지 마세요. 그레타 언니가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개입되었거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가질 수가 없다고요.

로즈 : 양육권! 아이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난 개가 이상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 애 혼자 밖으로 나가게 내버려 둘 권리가 너희들한테는 없어. 내가 충고하는데 당장 의사를 불러서 그 애를 병원에 넣으라고 해라, 난 책임지기 싫으니까-

헬렌 : 여기서는 의사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환자의 동의도 없이 전기 충격 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로즈 : 내 동생 클레어도 전기 충격 요법을 받았어. 그래도 말짱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그레타: 나 말짱해요.

로즈 :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그레타: 택시를 탔어요. 경찰 차가 문 앞에 나타나는 걸 싫어하실 것 같아서요.

로즈 : 너 그런 짓을 해 놓고도 경찰 차 걱정을 하니? 세상에, 아주 잘났구나.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아주 망했다. 정말이야!

그레타: 왜요? 뭐가 잘못 됐어요?

로즈 : 이 교구 내에 있는 학교 교복의 독점 판매권을 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참인데, 네가 교회에서 성배를 훔쳐서 체포됐잖아. 이 교구의 사제가 이 사건에 대해 뭐 라고 할 지 두고 보자!

그레타: 교회에서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성변화되지 않은 영성체 빵이었어요.

로즈 : 그래, 그것 참 다행이구나 - 그냥 단지 절도야,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사회에 나가서 심사 받을 때 그렇게 말 할 수 있겠구나.

헬렌 : 엄마는 그레타 언니가 아프다고만 말하면 돼요.

그레타: 나 아프지 않아. 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난 모두에게 계속 애기했어. 그런데 넌 경찰에서 내가 아프다고 말했구나.

헬렌 : 언니를 꺼내려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언니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과 : 그러지 않겠다고 언니가 말했잖아.

그레타: 난 갑자기 깨달았어.

로즈 :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빠도 병원에 계신데. 아무도 이 얘기 아빠한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무도 이 얘기 꺼내지 마.

이과 : 신문에 나면 당연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얘기 할 거

라고.

헬렌 : 병원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하지마.

(그레타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이게 뭐야?

(그레타가 헬렌에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건넨다.)

그레타: 내가 성명을 발표했어.

로즈 : 맙소사, 아무래도 내가 네 아빠 뒤를 따를 것 같다.

(로즈가 가슴을 움켜쥔다.)

헬렌 : 엄마, 그만 하세요!

(헬렌이 그레타에게 종이를 돌려준다.)

성명서에 뭐라고 했어?

그레타: 읽어 봐.

헬렌 : 싫어, 언니가 말해.

이파 : (종이를 잡아채며) 오, 제발!

(읽는다.) 아일랜드의 교회가 폭력을 비난하면서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커다란 위선이다. 당장 분리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5세부터 통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헬렌 : 언니는 교회를 통째로 비난했구나 -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그레타: 당연하지.

헬렌 : 뭐, 그건 괜찮을 거야.

로즈 : 지금 농담하는 거니? 재단에서 영성체 빵이 가득 들은 성배를 훔치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색종이 뿌리듯 나눠주더니 이번에는 학교 내의 종교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난 가게문을 닫게 생겼어! 너 지금 내 장사 망치려고 드는 거니?

그레타: 엄마 사업에 폐 끼친 거 없어요.

로즈 : 그래 없다, 하나도 그런 거 없어! 네 아빠를 아주 꼭 빼다 박았구나! 나한테 괴팍하게 구는 게 아주 똑같애!

그레타: 그만! 그만! 그만! 엄마. 엄마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로즈 : 제발 잉글랜드로 빨리 돌아가라 -

헬렌 : 그레타 언니, 이러면 안 돼. 이걸, 이걸 언니의 임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제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속삭이면서 이런 일을 부추기는 그 목소리를 막아야 한다고.

그레타: 어쩔 수가 없어. 그 목소리가 나와 같이 도망 다니는 느낌이야. 그 목소리가 말이다.

이과 : 언니, 왜 그런 거야?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잖아!

그레타: 살인을 막고 싶었어. 내가 그 목소리에 복종하면 살인이 모두 끝날 것 같았어.

헬렌 : 어디 조용한 데로 가야겠어.

그레타: 나 아픈 거니, 헬렌?

이과 : 언니는 아픈 것처럼 보이지 않아 - 아주 즐거워 보여.

헬렌 :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차분하면 덩달아 진정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주위에 너무 긴장이 흐르면 -

이과 : 내일 해변으로 가면,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나면 말야.

헬렌 : 우리 모두 가는 게 어떨까 - 언니, 이 성명서 낼 때 언니 이름도 넣었어?

그레타: 아 아니. 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난 단지 그 목소리를 담은 그릇일 뿐이야.

헬렌 : 그럼 잘 됐어.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무거운 장화를 신고 달리는 소리)

첫 번째 군인의 목소리 : (무대 뒤에서) 멈춰!

매너스의 목소리 : 난 여기 살아요. (소리치며) 엄마! 엄마! 여기 나와서 이 군인들에게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해 줘요!

로즈 : 오, 이번에는 또 뭐지? 한시도 잠잠할 때가 없구나.

(로즈가 이미 일어서서 앞으로 나간다. 납작한 종이 상자를 들고 있는 매너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종이 상자 때문에 손을

들 수 없다. 군인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 뒷걸음질치고 있다.

매너스: 엄마!

(장총 끝을 매너스에게 겨누고 있는 첫 번째 군인이 이제 보인다. 그 뒤를 따라 다른 군인 한 명이 오고 있다. 간간히 라디오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큰 군용 차량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걸 곧 알 수 있다. 로즈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숨을 죽인다.)

첫 번째 군인 : 너는 도로 방책을 무시하고 갔다, 아일랜드 새끼.

(두 번째 군인은 마당에서 여자들을 권총으로 제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갑작스런 침입으로 인해 겁에 질렸다. 매너스만이 위급한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듯이 행동한다.)

매너스 : 그러지 않았어. 당신네 도로 방책은 길 한 가운데 있었어. 난 길 가운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다고. 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

로즈 : 그 애는 여기 살아요.

매너스 : 그리고 내 이름은 아일랜드 새끼가 아니야 이 멍청아.

첫 번째 군인 : 신분을 확인하겠다, 아일랜드 새끼!

(매너스가 움직이지 않는다. 헬렌이 앞으로 나선다.)

헬렌 : 이 사람 이름은 매너스 플린이에요. 벨파스트 14 콜링우드가 212번지에 살고 있어요.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서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꺼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제 이름은 헬렌 플린이에요, 이 사람 누나 구요. (헬렌이 면허증을 군인에게 보여준다.)

고급 맞춤형을 입고, 언니들과 함께 벨파스트의 뒷마당에서 있는 헬렌을 자세히 살펴본다.

첫 번째 군인 : 런던?

헬렌 : 네. 맞아요.

로즈 : 애들 모두 잉글랜드에서 금방 왔어요. 두 명은 그렇고 애는 시골에서 올라 왔어요.



첫 번째 군인 : 면허증 어디 있어?

매너스: 집에 있어요.

이파 : 괜찮다면 내가 들어가서 가지고 올게요.

두 번째 군인 :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

로즈 : 애는 여기 살아요, 정말이에요. 위험한 애가 아니에요. 아빠는 병원에 계시고, 내 심부름을 하던 중이었어요, 도매점에 전할 게 있어서 -

두 번째 군인 : 그 상자 열게 해.

첫 번째 군인 : 상자 열어, 아일랜드 녀석!

매너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열지 못해요!

(그레타가 끼어 든다. 그녀는 매너스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아 연다. 상자 속에는 흰 색 베일 세 개가 있다. 그녀는 상자를 떨어뜨리고 손으로 베일을 잡는다.)

첫 번째 군인 : 이 집에서 누가 결혼합니까?

그레타: 그건 애들 거예요.

로즈 : 쪼그만 여자아이들 거예요. 첫 영성체에 쓸 겁니다.

이파 : 우리 엄마가 하시는 일이에요. 엄마가 가게를 갖고 계세요. 아기부터 열 한 살짜리까지 여자아이들 옷을 팔고 있어요.

로즈 : 플린 의상실, 그게 내 가게 이름이에요.

(그레타가 베일을 팔에 두른 채 그대로 있다. 군인들은 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채로 있다. 첫 번째 군인이 호기심과 재미가 섞인 눈초리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군용차에서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던 게 분명한 장교 한 명이 급히 들어온다. 그는 로즈에게 말을 건다.)

장교 : (조용히 말한다.) 이 젊은이의 거주지가 여기 입니까, 부인?

로즈 :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매너스 플린.

장교 : 이 자가 차에서 내려 이곳으로 급히 왔어요.

로즈 : 어쨌든, 여기가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을 시간이고요.

장교 : (계속해서 로즈에게 말한다.) 매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가 무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자가 급히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고 그래서 뒤쫓아 온 겁니다. 이 집안 누군가의 생명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즈 : 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 분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이해가 가요.

매너스: 이건 정당한 게 아니야. 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이 사람들은 나를 계속 멍청한 아일랜드 새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들어 온 거라구요.

헬렌 : 됐어, 매너스.  
(장교가 군인 둘을 끌고 간다.)

첫 번째 군인 : 잘 있어 -아일랜드 녀석.

이과 : (자신의 손을 매너스의 팔에 올려놓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군인들이 나간다.)

매너스: (퍼붓는다) 돼지 똥물에다 돼지 죽 같은 놈들!

헬렌 : 입 다물어!

이과 : 아무래도 앓아 누울 것 같아.

(군용차의 문의 쿵 닫히는 소리)

매너스: 튜더 잉글랜드를 쳐부수자!

헬렌 : 그만해, 이 멍청이 바보 같은 놈아!

매너스: 트로이를 쳐부수자.

그레타: 제발 그만해.

매너스: 어이, 여기 좀 보셔. 군인들한테 친절도 하시지. 차라도 한 잔 대접하지 그러셨수.

헬렌 : 이기적인 녀석!

로즈 : 진정해라. 매너스는 모른다.

매너스: 왜 다들 마치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들 그러세요?

헬렌 : 너 차에서 내려 뛰어들어오면서 뒤에다가 군인들까지 몰고 왔잖아!

매너스: 난 엄마와 누나들이 모두 다 바깥마당에 나와 있는 줄 몰랐어.

헬렌 : 관 뒤! 이봐 나 이렇게 떨고 있잖아. (팔을 앞으로 내민다.) 그 장교가 너를 쫓 세 가지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 줬잖아. 노상 방책을 침범했고, 무장을 했을 수도 있었고, 매복일 수도 있었다고. 만날 신문에서 읽는 그대로야. 잉글랜드에서는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매너스: 누나는 히스테리아!

그레타: 우린 뒷마당에 있었어, 매너스. 그 군인들 말야, 먼저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심문을 할 수도 있었다구.

이과 : 그리고 아무도 우리 사정을 모를 거구.

로즈 : 죽어버리면 그 뿐이야.

그레타: 살아 있어야 상황 설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알겠어, 매너스, 우리가 할 일은 살아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매너스: 오늘 왜 내가 걸렸는지 알아.

이과 : 왜?

매너스: 어젯밤에 일어난 일 때문이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주의를 끌게 마련이야.

그레타: 등골이 오싹해, 정적이 감돌면.

헬렌 : 글썸, 난 경찰서를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줄 몰랐어. 내 차를 신고해야 했어.

이과 :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간 거구나. 하지만 그건 범 죄가 아니야.

로즈 : 내가 말했잖아. 집에 와서 경찰에 전화해야 하는 건데. 군인들은  
우리가 병영을 공격하려는 줄 알았나 봐.

헬렌 : 입구까지 가서 벨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로즈 : 가미가제적인 요소가 있어. 어떤 자들은 이판 사판 이거든.

매너스: 난 경찰서 건물과 병영의 벽들에다가 이렇게 써넣고 싶어. ‘잊어라  
1690년! 잊어라 우리의 역사! 기억하라 -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헬렌 : 어딘가에서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런 말이 아무것  
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닐걸

매너스: 상관없어. 그 문구가 거기 써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약속이  
고 뭔가에 대한 맹세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문구가 이미 사라졌  
을 거야.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아니면 그 위에 덧칠해서 지  
워 버려도 상관없어. 누군가 쓰고, 쓰고, 또 쓸 테니 까. 그러니까  
써야 돼 - 벽에다가 그 문구를 써넣어야 된단니까.

그레타: 길에 앉아!

매너스: 거기다가 쓰라고 - 이미 늦어버리기 전에.

로즈 : 오 이제 좀 진정해라, 아들아. 자, 내가 점심 해 줄게. 지각할라.  
(로즈가 집을 향해서 간다.)

로즈 : 자, 그레타! 계속 팔에다 베일을 걸치고 서 있을 거니? 더러워지기  
전에 상자에다 집어넣어라. (로즈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매너스  
는 마당에 남아 있다.)

이과 : 난 언니가 상자를 열어서 그 조그만 베일들을 꺼낼 때 우스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 불쌍한 군인은 신부가 어리기도 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레타가 베일을 머리에 쓴다.)

그레타: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이과가 다른 베일을 꺼내 얼굴 아래에 대고 살짝 비벼댄다.)

이과 : 정말 불가사의야.

그레타: 헬렌? (그레타가 헬렌에게 베일을 건넨다.)

헬렌 : (베일을 손가락으로 만진다.) 난 이거 쓰지 않을 거야 - 재수가 없을 것 같아.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집 뒤편으로 다가와 시야 안으로 들어온다.)

폴 : 헬렌?

헬렌 : 폴!

이과 : 세상에, 헬렌, 대체 누구야?

헬렌 : 이 분은 폴 와터슨이야. 어젯밤에 우릴 도와 주셨어.

이과 : 아, 그 경찰관... 옷을 바꿔 입어서 몰라봤어요.

헬렌 : 어서 들어오세요. (헬렌이 폴을 문안으로 안내한다.) 차가 정말 훌륭해요. 새 걸 얻었거든요.

폴 : 군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라디오로 방송했습니다. 그 때 난 쿤가에 있는 병영에 있었습니다. 별 일 없으십니까? 지금은 근무시간이 아니지만 한번 들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렌 : 지금은 괜찮아요.

이과 : 충부리를 들이댄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폴 : 그 사람들은 직권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한 거예요. 당신 남동생이 도로 방책을 무시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이과 : 분명히 멈췄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생 말로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군인들이 자기에게 폭언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개한테 멍청한 이일랜드 놈이라고 불렀대요. 난 동생 말을 믿어요. 매너스, 네가 말해!

매너스: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도 군인들이 나에게 폭언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폴 : 그 연대가 약간 과잉 반응을 합니다. 요즘 그 연대 사람들이 시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잉여 인원 통지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파 : 군인과 결혼한 여자들은 힘들겠어요. 정부에서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할 때는 말예요.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심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버밍햄이나 런던에 있는 술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일랜드 사람이 전날 밤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일 수도 있잖아요. 잉글랜드에서 군인 노릇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레타: 잉글랜드에서는 폭탄이나 다름없죠?

폴 : 그 연대 소속 군인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살해된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즈가 마당으로 나온다.)

로즈 : 차 드시겠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폴 : 괜찮습니다, 플린 부인.

로즈 : 케이크 좀 드릴까요?

폴 : 아니 괜찮습니다.

로즈 : 아들아, 식탁에 점심 차려 놔다.

그레타: 카톨릭이세요?

폴 : 예.

그레타: 그럼 어떻다는 걸 아시겠네요.

폴 : 어떤데요?

그레타: 살인자들의 믿음과 살아 남은 자들의 죄를 지니게 되는 거죠.

(폴이 로즈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로즈 : (매너스에게) 늦을 거구나.

폴 : 어디서 일하세요?

매너스: 스톤몬트 호텔에서 바텐더로 일해요.

로즈 : 직장이 두 군데예요.

매너스: 일 주일에 육십 시간을 일했는데 최근에 스물 세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시내의 한 술집에서 일해요.

폴 : 이봐요 매너스 - 성질 좀 죽어요, 네.

매너스: 성질이 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게요 엄마. 나중에 병원에서 뵈요.(집 안으로 들어간다.)

로즈 : 조심해라.

헬렌 : 들러 줘서 감사해요.

폴 : 언제 한 잔 해요.

(헬렌이 폴의 손을 가볍게 두드린다. 둘이 대문으로 간다. 헬렌이 낮은 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미소짓는다. 폴이 떠난다. 헬렌이 돌아선다. 모두 헬렌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

헬렌 : 그 사람 돈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그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어.

이과 : 경찰이잖아.

로즈 : 네가 아는 한 그 남자 너한테 모든 충성을 바치진 않을 거다.

헬렌 : 그런 소리 마세요. 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그런 남자를 만난 거라고요.

이과 :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헬렌 직업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레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안 돼.

헬렌 : 사랑에 대해 나한테 설교하려 들지 마.

로즈 : 우리 가족 중에 경찰관과 사권 사람은 아직 없었다.

헬렌 : 없어요. 우린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되 보지 못했어요.

(신문이 멀리서 마당 안으로 날아온다.)

소년들의 목소리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문이요!

(신문이 마당 가득 흩어진다.)

로즈 : 저 빌어먹을 녀석! 저 녀석 혼 좀 내 줘야 하는데! 밤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뒷문에다 던져 놓고 가니까 집으러 가면 마

당 가득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야.

(헬렌이 신문을 집어 든다.)

이과 : 뭐 특별한 거 있어?

헬렌 : (그레타에게) 언니 얘기는 낙태 사건 때문에 뒤로 밀렸어.

로즈 : 끔찍하군.

이과 : 아일랜드에서 강간당해서 생긴 아이를 잉글랜드에 가서 낙태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또 있는 거야?

로즈 : 말도 안 돼.

이과 : 난 그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 아기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강간으로 생긴 아기들도 다 낳는다면 세상은 아주 많이 달라질 거야.

헬렌 : 그래, 더 나빠지겠지, 원치도 않고 사랑으로 생겨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면 말야.

이과 : 아니. 난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더 나빠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레타: 너 완전히 돌았구나, 그거 아니?

헬렌 : 맏소사! 사진이 있어!

(모두 둥글게 모여든다.)

이과 : 이름이 나왔어?

그레타: 뭐라고 써 있어?

헬렌 : 잉글랜드는 감옥이야. 북아일랜드로 돌아와서 훨씬 나은 것 같아. 뭐라고 써 있나 하면, 미친 여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서‘ (잠깐 다음) 농담이야. 이렇게 써 있어. ‘카톨릭 교회가 여성에 대해 사제 서품을 거부하는 데 대한 한 여성의 반발!’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을 보여 준다.)

이과 : 난 안 믿어.

그레타: 그게 전부야? 통합 학교에 대한 얘기는 없어?



헬렌 : 전혀. 언니, 탈출의 귀재 후디니<sup>3)</sup>보다도 더 쪽쪽 잘 빠져나간다.

(그레타가 충격 받은 표정을 짓는다.)

그레타: 바로 그거야.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있다면 신도 여자가 될 수도 있어.

헬렌 :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레타: 난 상관 있어. 그건 여성도 사랑 받게 된다는 뜻이야.

헬렌 : 어쨌든,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레타: (혼잣말로)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전화벨이 울린다.)

로즈 : 전화 좀 받아라. 손님일 거야. 헬렌이 받아서 잉글랜드 억양으로 말하면 손님 다 쫓아낸다.

헬렌 : 난 잉글랜드 억양으로 말 안 해요. 미국 억양으로 말하지.

로즈 : 어쨌거나 전화 잘못 건 줄 알고 끊어 버릴 거야.

그레타: (혼잣말로) 그리고 그게 뭘 뜻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정할 거야. 왜냐하면 귀 기울여 듣질 않으니까. 보지도 않고.

헬렌 : 그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군데?

그레타: 그러니까 나도 그만 말하는 게 좋겠어.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할 거야.

헬렌 : (확연하게 움츠러드는 그레타의 태도에 놀라)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마. 신문일 뿐이야. 그레타 언니, 제발 이러지 마.

(이파가 집 문으로 온다.)

내일 차 타고 해변으로 가서 물개 구경하자 -

이파 : 아빠가 돌아 가셨어.

(그레타가 비명을 지른다. 2막에서 무대 뒤에서 낸 소리와 같은

---

3) 미국 출신 마술사로 탈출 묘기의 제 1인자

소리이면서 자신이 낸 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소리이다.)

로즈 : 너희들 아빠라구! 내 남편이야!

(그레타가 다시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비명 소리, 구슬픈 통곡 소리)

헬렌 : (손을 귀에 대며) 그만해!

## 제 6 장

식당. 마이클 플린의 시체가 누워 있는 관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레타가 시체 옆에서 밤을 새고 있다.

그레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내면 어느 한 부분은 떠나오던 그 시간에서 멈춰버린 걸 보면 정말 웃겨요. 하루는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1956년에 마요를 떠났는데 그때 그의 시계는 멈춰 버린 거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었어요. 그는 철도역에서 일하는데 승진을 해서, 매일 일과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아주 짧은 일과보고 말이에요. 열차 번호와 시간, 그리고 특이 사항이 생기면 보고하는 정도죠. 하지만 그는 쓸 줄을 몰랐어요. 그 사실을 말하면 해고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앞서 몇 년간의 기록을 모두 베꼈어요.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계속 베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각될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발각이 될 거구요.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쓰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힌두교도 어린이 한 명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애는 아홉 살 때 나이로비에 서 잉글랜드로 왔어요. 그는 학교에 온 첫 날 교실에 앉

아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의 이름을 베껴 썼어요. 쓰는 걸 배우지 못 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아무도 그 애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썼을 때 어떤 모 양이 되는 지도 몰랐어요. 소리와 단어가 일치되지 않은 채 뭐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쯤 다른 학교에서 온 선생님이 그 아이의 책을 집어 들고는 말했어요. ‘이건 네 이름이 아니야, 이건 여자 이름인 걸.’ 혼란스러워진 그 아이를 사람들이 나한테 보냈어요. 아빠, 난 그 마요에서 온 그 남자와 힌두교도 어린이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도 똑 같 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베끼고 있어요. 공포심 때문이죠. 그 때 난 우리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요에서 온 남자, 힌두교도 어린이, 그리고 나 말고도요. 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하지만 누가 말하는지 아무도 구분을 할 수 없고 대신 흘러진 말과 서로 더 맞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만 들려와 전 언제나 당황하게 되죠.

(마이클이 관에서 일어나 앉아 눈을 비빈다.)

마이클: 로즈 당신이요?

그레타: 아니에요. 저예요.

마이클: 그레타구나.

그레타: 제가 한 얘기 한 마디도 듣지 않으셨죠?

마이클: 무슨 얘기였지?

그레타: 제 분노에 대한 거죠. 전 아빠한테 오랫동안 제가 두려워했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왔다는 거, 그리고 제 분노가 다시 돌아오자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 전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마이클: 문제? 너희 엄마는 오늘 네가 학교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말 하더구나. 수녀님과 말이야.

그레타: 엄마는 아빠가 공산주의자래요. 아빠, 공산주의자가 뭐예요?

마이클: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난 전 세계가 민주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 뿐이야.

그레타: 민주적요?

마이클: 만물이 평등하다는 거지. 난 위계질서 같은 건 믿지 않는다.

그레타: 위계질서가 뭐예요?

마이클: 어디 보자 - 강에는 연어가 살고, 또 잔챙이들도 산다. 사람들은 연어가 물고기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연어 보다 차라리 잔챙이가 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단다.

그레타: 어떨 때요?

마이클: 잡히고 싶지 않을 때. 강에 큰 그물을 쳐 놓으면 잔챙이는 빠져나가기 쉽지.

그레타: (혼잣말로) 전 동의하지 않아요. 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더 중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행동을 취하기가...

마이클: 수녀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아빠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라고.

그레타: 그럴 수 없어요.

마이클: 왜?

그레타: 전 퇴학당했어요.

마이클: 잘 된 일이다. 잘 됐어.

그레타: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넌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전 수녀님의 베일을 잡아당기려고 했죠.

마이클: 수녀원이란 데가 그런 데야. 가장 나쁜 것들은 전부 스페인에서 비롯됐어, 프랑코 장군, 종교 재판, 단체 여행 다 그렇지 않니!

그레타: 수녀님이 제 안에 악마가 있대요.

마이클: 그건 악마가 아니야. 네 천성이지!

그레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뭘 해야할지 모를 때면

가끔 전 화가 나서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분노가 저 대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 로즈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이클: 저 여자가 왜 갑자기 나타났니?

로즈의 목소리 : (무대 밖에서) 당신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그레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죠?

마이클: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그레타: 아빠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사십 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마이클: 약속이 열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레타: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이클: 사랑. 말도 안 돼. 보편적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인류를 사랑하라. 지식을 사랑하라. (한숨을 쉰다.) 어쨌든 난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레타: 전 아빠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여기 와서 말 좀 해 봐라 - 쌍둥이는 잘 크고 있니? 만나 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좀 데리고 올 수 없겠니?

그레타: 캐더린은 오케스트라에서 베를린으로 여행을 갔는데 열차에서 포커를 해서 오십 파운드를 땀어요.

마이클: 대단한 녀석이야, 거봐라.

그레타: 그게 뭐가 대단해요. 겨우 열 한 살인데.

마이클: 조는 어떠니?

그레타: 아, 조 말예요? 조는 낚시를 아주 잘해요. 개는 어떤 농부랑 친구가 됐는데, 그 농부가 자기 소유지 안에 있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게 허락해 줬지 뭐예요. 자기가 속한 낚시 모임 회원들한테는 못하게 하면서. 개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마이클: 개는 누구 닮았니?

그레타: 아빠 닮았어요.

마이클: 낚시 잘 하는 것도 나를 닮았구나.

그레타: 조가 처음으로 연어 잡은 얘기 해 드렸어요?

마이클: 그 얘기는 언제 들어도 좋더구나. 다시 얘기 해 주렴.

그레타: 전 조가 건초 더미 아래 숨겨 놓은 냉동비닐 속에서 그 연어를 꺼내 보여 주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와 그 농부 아저씨는 숨겨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시기라도 하면 좋을 게 없으니깐요. 그 애가 그걸 잡은 건 분명했어요. 조는 연어가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기 전까지는 작은 놈일 거라고 짐작했대요. 그 애 말을 빌면, 물 속으로 다시 들어 갈 때는 물이 너무나 세차게 튀겨서 다 자란 어른이 강가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든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나요.

(확자하게 큰 웃음소리)

마이클: 노력 없이 얻으면 기쁨도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레타: 진짜 연어를 잡은 거였어요.

마이클: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지. 말해 버리면 그 뿐이야.

그레타: 오, 잘 모르겠어요. 맞은 꽤 좋았어요.

(로즈가 문을 세게 두드린다.)

로즈의 목소리 : (무대 밖에서) 당신은 나보다 그레타를 더 사랑해요!

마이클: 저 불쌍한 여자가 또 나타난 거니?

(관에 다시 눕기 시작한다.)

그레타: 아직 가지 마세요. 아빠, 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마이클: 네 남편 얘가지, 맞지?

그레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마이클: 네 남편에게 호감을 가져 본 적이 없었어.

그레타: 그건 아빠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오, 네 남편은 건방진 놈이야. 기회를 봐서 한 번 때려 줘야 했는데. 네 엄마가 말렸어. ‘때리지 마세요, 미키.’ 네 엄마가 그러더

구나.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네 남편을 쳐다보니 금방 알겠더구나. 영원히 성인이 되지 않고, 얼굴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나이만 먹는 아이, 피터 팬 말야. 난 네가 왜 그런 남자한테 네 자신을 맡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그레타: 전 혼자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전 문을 이중으로 잠가 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잠자는 것도 싫었어요. (마이클이 완전히 늙는다.)

마이클: 난 정말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네 엄마와 내가 빗속에서 낚시를 하곤 했어. 그리고 네 엄마는 나보다 더 낚시를 잘했어.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린다. 로즈가 매우 기분이 상한 모습으로 잠옷을 입고 등장한다.)

그레타: 왜 그러세요, 엄마?

로즈 : 네 아빠 어디 계시니? 너 아빠 어디다 숨겨 뒀니?

그레타: 여기 계세요. 아빠 그냥 여기 계세요. 와서 보세요.

(마이클이 관속에 편안히 누워있다. 로즈가 남편의 얼굴에 입을 맞춘다.)

로즈 : 자, 이게 네 아빠가 받는 마지막 키스다. 내 남편이야. 너 가서 키스하면 안 된다.

그레타: 안 해요.

로즈 : 약속하지? 마지막으로 키스하는 사람은 나여야만 해. 내가 한 키스가 마지막이 되게 가만 뒤야 한다, 알겠니?

그레타: 알겠어요.

(로즈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로즈 : 아빠는 화장을 원하셨다.

그레타: 네.

로즈 : 넌 아빠가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길이 몸에 닿을 때 말

야.

그레타: 아뇨.

로즈 : 괜찮아. 묘지도 꼭 찾아. 암살 당한 사람들 요즘은 주차장 주변에  
까지 묻힌단다. 그냥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지. 꽃이 놓여 있으면  
거기가 무덤인가보다 하는 거지.

(이파가 잠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온다.)

이파 :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엄마? 가서 주무세요.

로즈 : 네 아빠는 몇 년 동안 교회에 안 가셨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제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도 네 아빠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거다.

그레타: 알아요.

이파 : (아빠의 손을 만지며) 아빠는 정말 작은 영웅이었어요.

로즈 : 그러지 마라.

이파 : 뭐라고요?

로즈 :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지는 사람이 네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마  
지막이어야 해.

그레타: 침대로 돌아가요. 둘 다.

로즈 : 아니, 난 여기 남아서 내 키스를 지켜야 해. 아무도 뺏어 가지 못  
하도록.

(헬렌과 매너스가 방으로 들어온다.)

헬렌 : 무슨 일이야?

그레타: 엄마가 주무시지 않겠대.

로즈 : 이파가 가면 나도 간다.

매너스: 어이구. 개와 고양이라니까!

이파 : 내 아빠야. 내가 원하면 만질 수 있어.

(마이클에게 키스하러 간다.)

(로즈가 이파를 밀쳐 낸다.)



로즈 : 내 남편이야.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과 : 전 딸이에요. 엄마는 부인일 뿐이라고요.

로즈 : 우린 같은 피붙이지만 엄만 아니에요.

헬렌 : 이과!

이과 :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로즈 : 난 네 엄마다.

이과 :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헬렌 : 이과, 그만해.

이과 : 아빤 제게 아빠인 동시에 엄마였어요!

그레타: 매너스, 이과를 좀 밖으로 끌어내라. 당장!

매너스: 싫어.

그레타: 헬렌!

(헬렌은 이과에게로 가고 그레타가 엄마를 붙잡는다.)

이과 : 엄마는 자식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딸들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들 모두 싫어했어요. 엄만 아들한테만 사랑을 쏟았어요. 엄만 아빠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로즈는 이과의 말에 질려 거의 쓰러질 지경이다. 로즈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는다. 헬렌이 이과를 문 쪽으로 끌어내려 한다.)

헬렌 : 언니, 엄마를 죽일 작정이야? 제발 그만 두지 못하겠어?

매너스: 사실이야. 이과 누나가 말한 건 다 사실이라고.

(로즈가 매너스에게로 돌아선다.)

로즈 : 오 아들이야, 아들이야. 너까지 그러진 않겠지.

(매너스는 로즈가 자신을 껴안지 못하도록 손을 치켜든다.)

매너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줌마!

(로즈가 다시 돌아선다.)

로즈 : 그레타, 네가 얘기 좀 해 봐라. 내가 아팠을 때 네가 날 돌봐 줬잖

니. 네가 얘기 좀 해 줘.

매너스: 그래, 그레타 누나. 얘기해 봐. 저 여자가 너더리나는 금고와 돈 문제로 아빠를 달달 볶아서 일찍 무덤으로 보냈다는 걸 누나가 얼마나 분명히 알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봐.

그레타: 매너스, 너 정말 비열하구나.

매너스: 그래 나 그런 놈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난 고리대금업자 아들이라고!

로즈 : 하지만 난 널 길렀다. 널 교육시켰어. 돈 한 푼 없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네 아빤 일자리도 못 구했어. 그래서 난 뜨개질로 시작해 옷을 만들어 팔아서 정당하고 떳떳하게 돈을 벌었다. 사람들이 내 옷을 사가서 돈을 내지 못하면 내가 빌려 줬다. 그게 뭐 잘못됐니? 네가 음악 공부하는 것도 다 내가 돈을 댔어. 그거 명심해라.

매너스: 아빠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로즈 : 네 아빠는 비현실적이었어.

매너스: 아빠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웠던 거지. 엄마는 이곳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던 거예요. 영성체 드레스가 아니에요. 첫 영성체 드레스가 아니라고요. 엄마가 파는 옷들은 새로운 영성체 드레스도 됐지만 저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받는 이자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 사이에서 매겨졌어요.

로즈 : 다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한 일이야. 나도 마음이 아팠다. 난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줄 아니. 그레타 네가 말 좀 해 봐. 친절하진 말 한 마디가 듣고 싶어 내가 얼마나 병이 났는지.

그레타: 그랬어. 정말 그랬어. 엄마는 아빠를 잃은 거야. 엄마가 취해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옮겼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엄마를 일으켜 드렸어.

매너스: 엄마가 날 얼마나 두들겨 뺐는데 그 애긴 왜 안 해?

그레타: 너를? 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로즈 :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몰랐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그레타: 엄마를 혼자 좀 놔 뒤!

매너스: 엄마는 누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는데 누나는 엄마를 변호하고 있구나.

로즈 : 내 자식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 자식들이 날 미워해.

헬렌 : 진절머리가 나, 이파 언니 아까 뭐라고 했지? 피붙이 사랑?

이파 : 우린 아빠의 자식이야. 엄마는 부인에 불과하다고.

헬렌 : 우리 안엔 엄마 피도 흐르고 있어.

이파 : 아빠가 더 가까워. 그리고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었어.

헬렌 :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었던 건 엄마 덕이야.

이파 : (헬렌에게) 너 아빠 스웨터 입고 있구나.

헬렌 : 추워서 입었어. 잠옷 위에 걸쳐 입었어.

로즈 : 이리 내 놔라. 내 옷이다.

헬렌 : 그래요. 여기 있어요.

(헬렌이 스웨터를 벗는다. 헬렌은 스웨터 안에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로즈는 딸의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

그레타: 헬렌에게 스웨터를 돌려 줘라. 내가 다 줘다.

로즈 : 너 어디서 그걸 찾았니, 응? 아빠 옷들은 모두 싸서 감춰 뒀는데.

이파 : 아빠가 제게 옷을 남기셨어요. 데미온 주라고요. 헬렌은 그걸 입을 권리 없어요.

그레타: 얇은 스웨터 한 장도 안 돼? 빌려 입는 것도 안 돼?

로즈 : 너 왜 개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니? 내가 부인이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 해.

그레타: 헬렌이 이 스웨터 빌려 입어도 돼요?

헬렌 : 난 필요 없어.

(그레타가 엄마에게서 살짝 스웨터를 가져간다. 그레타가 헬렌에게 스웨터를 돌려준다.)

그레타: 너를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추워서 안 되겠다.

(헬렌이 스웨터를 받는다.)

헬렌 : 여기 있어, 이파 언니. 언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닌 아빠 스웨터 입은 남편이랑 그 짓 할 수 있겠네.

(헬렌이 나간다. 매너스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집는다. 연주하는 흥 내를 내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레타: 뭐 하는 거니?

매너스: 나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 중이야.

(이파가 아빠의 낚시용 스웨터를 입고 있다.)

이파 : 죄송해요. 엄마.

로즈 : 항상 보면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말을 할 때가 많더구나. 신경 쓰지 마라.

매너스: 여기 거짓말을 한 남자가 누워 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아빠, 네? 침묵하셔?

로즈 : 너무 피곤하구나. 너무 피곤해...

이파 : 아빠는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어. 우리와 함께 바로 여기 계셔.... 난 행복해. 난 정말 행복해.

로즈 : 누구 차 마실 사람 있니? 내가 차 끓였다.

그레타: 아빠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셨어?

매너스: 세상에, 그레타 누나. 누난 너무 순진해.

그레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레타만 남기고 모두 퇴장한다. 그녀는 관에 기대고 있다.)

아빠, 천국에 계신가요? 그곳은 어때요?

(마이클의 손이 관 밖으로 나와 그레타의 목을 움켜잡는다. 그레

타는 빠져 나오려고 애쓴다. 손을 물리친다. 숨을 헐떡이며,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찾잔이 받침 위에서 덜거덕거린다. 헬렌이 옷을 입고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온다.)

헬렌 : (부드러운 소리로) 괜찮아?

그레타: 꿈을 꾸고 있었는데.... 비가 내렸어.

헬렌 : 지금 비가 오고 있어. 봐.

(그레타가 헬렌에게서 찾잔을 받아 들었다. 헬렌은 창가로 간다.)

안과 밖이 똑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지? 궁금해.

그레타: 비 올 때 낚시하러 가곤 했어. 어머니!

(컵을 떨어뜨린다.)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레타가 마이클에게 말한다.)

아빠는 저 보다 엄마를 더 사랑했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때려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그걸 다 참았어요. 맏소사!

(헬렌이 언니를 부축하러 다가간다.)

전 매 맞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헬렌 : (머리를 흔들며) 이제 다 끝났어, 언니. 잊어버려.

그레타: 여기를 떠나자. 집에 가고 싶어.

(이과가 들어온다.)

이과 : 언제들 갈 거야?

헬렌 : 내일, 장례식 끝나고.

이과 : 재는 어떡하지?

그레타: 뱀 강에 뿌려 버려.

헬렌 : 톰브리지 강에 있는 장어한테 먹이로 줘 버리지 뭐.

이과 : 그래, 그게 좋겠어. 아빤 낚시꾼이었으니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매너스가 돌아온다.) .

매너스: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

그레타: 아빠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지?

매너스: 아빠는 말하는 게 두려웠어.

그레타: 두려워했다고? 아빠가? 아빠는 어부들이 장어 양식장과 싸움을 벌일 때 앞장서서 어부들을 이끌었어. 그 일로 생업을 포기하게 됐지만. 그리고 교회를 공격 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은 아무도 아빠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 아빠는 세상에 서 가장 용감하고 거리낌 없이 할 말을 다 하는 분이셨어.

매너스: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두려워했어! 그래서 대신 우리한테 얘기 하셨던 거야.

그레타: 그런데 왜 엄마는 나와 매너스만 때리고 너희들은 안 때렸지?

헬렌 : 그건 언니와 매너스가 아빠의 생각을 모두 말했기 때문이야.

이과 : 그렇지 않아. 그건 우리보다 언니와 매너스가 더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런 거야.

엄마는 아빠를 원관이라고 불렀어. (그레타를 가리키며) 첫 번째 복사판, (매너스를 가리키며) 두 번째 복사판.

(모두 웃는다. 문이 열린다.)

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로즈가 서서 자식들을 쳐다본다.)

로즈 : 너무 늦게까지 여기 있지 마라. 저 불빛을 보고 누가 올지도 모르잖니.

매너스: 네, 우린 괜찮아요.

로즈 : 저 멀리 길 위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는 소리가 들려서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 봤어. 그 여잔-

그레타: 엄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로즈 : 아니야. 내가 얘기하려던 건-

헬렌 : 괜찮아요.

로즈 : 자리 가야겠다. 잘 자라.

(문이 닫힌다.)

매너스: (조용히) 엄마 잘못이 아니야.

이과 : 엄마는 땅을 잃어버린 데 대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셨어.

매너스: 겨우 돌밭 1 에이커인데?

이과 : 크긴 작긴 마찬가지야. 강제로 쫓겨났잖아.

헬렌 : 카톨릭 신자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

매너스: 카톨릭 신자들은 강 반대편에 있어야 하는 건데 자리를 잘못 잡은 거야.

이과 : 사람들이 아빠에게 집에 대해 주의를 줬어. 그 집은 20년대와 30년대에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결혼 후 처음으로 대출 받아 그 집을 산 거야.

매너스: 아주 싼 거야. 내가 들은 바로는.

헬렌 : 어떻게 해서 언니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야?

이과 : 우린 강어귀에 살고 있어. 데미온의 어머니 맥이 조상 대대로 삼백 년 쯤 그곳에 서 살고 계시거든. 얼굴에 그렇다고 써 있어.

(매너스가 슬며시 웃는다.)

알아. 엄마 그렇게 보여. 아빠는 그 강가를 떠난 후로 아주 그리워 하셨어.

그레타: 그래 그리셨어. 아빠는 정말 그리워 하셨어.

이과 : 아빠와 엄마는 왜 함께 계셨지? 한 분은 카톨릭 신자이고 한 분은 공산주의자인데.

헬렌 : 아마 우리 때문일 지도 몰라.

매너스: 무슨 소리하는 거야? 유럽 국가에서는 그런 게 아주 평범한 조합인 것 같은데.

그레타: 그게 왜 네가 카톨릭 신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 이파?

이파 :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고? 왜 그래야 하는데?

그레타: 넌 스캔들도 많았으면서 여전히 미사에 참여하잖아.

이파 : 나 스캔들 없었어. 전화 번호만 갖고 있었어.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 거의 다.

그레타: 하지만 넌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 딴 남자랑 사랑에 빠져 도망쳤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니?

이파 : 당연하지.

그레타: 신부님께 고해 성사할 때 무슨 얘기하니?

이파 : 결국은 나와 하느님 사이의 문제야. 그리고 하느님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아무도 상관할 필요 없잖아.

그레타: 하느님이 문제삼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이파 : 난 이렇게 말했어, ‘하느님, 전 당신과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개, 아무개와 쪼금 바람 피우면 안될까요? (창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노랫가락이 실린 소리는 아니다. 처음에는 헬렌과 매너스만이 소리를 듣는다.)

그레타: 하느님이 허락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파 : 그런 일이 생기면 허락했다는 뜻이야. 생기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구.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린다.)

헬렌 : 들어 봐.

매너스: 무슨 소리지?

헬렌 : 창문에서 물러서.

그레타: 불 좀 어떻게 해! (불을 끄라는 뜻이다.)  
(매너스가 불을 끈다. 어둠. 문이 열리고, 어두운 마루 건너편 홀에서 불빛이 비친다. 로즈가 촛불을 들고 들어온다.)

로즈 : 앉아라, 애들아, 식탁 밑에 앉아. 유리창이 날아 들어오기라도 하



면 너희들 다 산산조각 날 거야. (로즈가 식탁 아래로 들어간다.  
모두 믿어지지 않는 듯 쳐다본다.)

여기 이거 좋지 않니? 누가 이야기 좀 해 주련?

그레타: 우리 다른 방으로 가면 안되나?

헬렌 :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절대 식탁 밑에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총성이 들린다. 둔하게 쿵하고 포장 도로에서 폭탄이 터  
지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 로즈가 있는 식탁 아래로 들어간다.)

물 한 양동이 옆에 갖다 놔야 하는 거 아냐?

로즈 : 왜?

헬렌 :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요.

로즈 : 모래가 더 낫겠다.

헬렌 : 모래가 없잖아요.

그레타: 오늘밤은 다 같이 아래층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과 : 내의를 다 입고 차야 할거야.

매너스: 난 잠 안 자. 내가 망블게. 내일 자면 돼.

그레타: 갑자기 - 내일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해 졌어.

매너스: 죄송해요, 엄마.

로즈 : 괜찮다, 아들이.

매너스: 전 절대로 결혼을 못 할 거란 거 아시죠.

로즈 : 안다.

(바깥 길에서 폭탄 하나가 다시 터진다.)

금방 아침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과 : 있잖아요, 이 식탁, 보기보다 약해요. 만날 틈새로 불빛이 다 비  
친다고요. 눈에 보이지만 앓을 뿐이지.

그레타: 누가 그런 얘기했어?

이과 : 대학에서 첫 날 로저 암스트롱이란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어. 그  
사람은 과학자였는데, 식탁에 대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해 줬어.

그레타: 그 남자 사랑하지 않았니, 이과?

이과 : 그 사람은 밴 강 윗동네에서 왔어. 우리가 자란 마을 근처에 있는.

로즈 : 강 그쪽에는 카톨릭 신자가 한 명도 없어.

이과 : 로저는 과학자야. 종교는 전혀 관심 없어.

로즈 : 하지만 가족들은 -

그레타: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웃겨요.

로즈 : 메이슨씨에, 암스트롱씨에, 오렌지맨씨까지.

헬렌 : 그걸 벗어나려면 멀리 떠나야지.

매너스: 아니야. 그냥 있으면서도 벗어날 수 있어.

그레타: 이번에 도망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헬렌 : 정말 좋다, 그렇지. 다시 모두 함께 모이게 됐잖아.

이과 :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번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쓴 키스에 대한 시를 읽어주었는데 제목이 사랑의 미립자였어. 웃더라. 로저 암스트롱이 나를 비웃었어.

헬렌 : 사랑의 미립자?

이과 :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그래 이 사람은 아니야! 데미온은 절대 안 웃었어.

그레타: 데미온도 그 시를 읽었니?

이과 : 응. 데미온은 그 시가 아주 훌륭하대. 그 사람은 계속 사랑의 미립자, 이과? 미립자!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키스했어. 그리고 난 그 당시엔 세 번 째 데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남자들이 나한테 키스하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데미온은 두 번 째에서 키스를 했어.

그레타: 갑자기 식탁이 아주 불안하게 느껴져.

헬렌 : 조용한 틈을 타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할 것 같아. 다른 방으로 가야해. 만일을 대비해서.

그레타: 내 생각도 그래.

매너스: 어서요, 엄마.

(매너스가 로즈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깜빡거리는 촛불을 들고 불이 켜진 현관으로 데리고 간다.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른다. 이과는 불 켜진 현관에 잠깐 남아 있다가 문을 닫는다.)

## 제 7 장

웨스트민스터 다리. 새벽 5시가 되기 직전. 마이클 폴린이 죽은 지 일주일  
이 지났다. 벽에 돌 의자가 있다.

헬렌이 이 돌 의자를 향해 걸어간다. 병 두 개가 들어 있는 갈색 종이 봉  
투를 들고 있다. 하나는 오렌지 주스이고 하나는 데킬라이다. 그레타도 걷  
고 있다. 그녀는 작은 비닐 봉지에 아버지를 화장하고 난 재를 들고 있다.

헬렌 : 여기야! 어서 와.

(헬렌이 그 의자에 털썩 앉는다.)

그레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

헬렌 : 마실게 엄청 많았어.

그레타: 지금 몇 시야?

헬렌 : 다섯시 십오분 전.

(그레타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해가 얼마나 멀리서 떠올랐는지 한번 봐.

그레타: 뿔이 셋 달린 공룡은 목이 길지 않았어, 그거 알고 있었어?

헬렌 : 아니. (데킬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몰랐어. 뭔데?

그레타: 트리케라톱스와 디플로도쿠스는 살아남지 못했어. 공룡 말야. 우리  
딸이 얘기해 줬어. 빌어먹을 공룡!

(헬렌이 오렌지 주스 병을 들고 자신의 입에 갖다 대려 할 때 그레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 위로 올라간다.)

헬렌 : (갑자기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레타: 재 뿌리는 거야.

헬렌 : 꼭 거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걸 들고 강 언저리까지 내려가도 될 것 같아.

그레타: 아니야. 여기가 더 나아. 바람이 불어서 멀리까지 날려 줄 거야.

헬렌 : 무슨 바람?

(그레타는 지금 다리 꼭대기에 서 있다.)

그레타: 저기 있는 새로 지은 중앙정보부 건물 보다 더 잘 보이는 데가 없어.

(그레타는 템즈 강에 아버지의 재를 조금 던진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정말 무던 영혼을 가진 자들이야. 웨스트민스터 다리의 노숙자들처럼.

(그레타가 재를 조금 더 뿌린다.)

헬렌 : 난 아직도 뱀 강에다 그 재를 다 뿌리는 게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빠는 이렇게 여기 저기로 분해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레타: 도시는 마치 옷을 입은 듯 -

(이들을 향해 길 위를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경찰 차가 트라팔가 광장에 있어. 군인들이 하원 의사당에 사열해 있다고.

(말발굽 소리가 점차 가까워진다.)

헬렌 : 그레타, 어서 내려와.

그레타: 고요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 배들과 탐들, 둥근 지붕들과 극장들, 그리고 사원들이 이 아일랜드 인에게 보란 듯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

(헬렌이 말을 타고 다가오는 경찰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헬렌 : 우리가 지금 기마 경찰의 주의를 끌고 있어.

그레타: 워즈워드여, 조국이 당신을 부릅니다!

헬렌 : 저 사람들 우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헬렌이 지나가는 경관들에게 손을 흔든다. 이제 이 두 여인의 정면에게까지 다가온 말발굽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린다. 그레타도 돌아다본다.)

안녕하세요. 축하하는 중 이에요.

경찰관의 목소리 : (무대 밖에서) 뛰어 내리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헬렌 : 우리 내일 결혼하거든요.

(헬렌이 데킬라 병을 치켜든다.)

건배.

(말발굽 소리가 지나간다.)

그레타: 말들! 나도 그렇게 악귀를 물리치노라!

헬렌 : 그레타, 제발 이제 그만 내려와.

(그레타가 잠시 망설인다.)

그레타: 아, 나 못하겠어.

헬렌 : 내 손을 잡아. 제발 내 손을 잡아.

(헬렌이 돌 의자 위로 올라간다.)

그레타: 나 못해.

헬렌 : 그레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난 언니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레타: 난 애들 없이는 살수가 없어. 하지만 조지하고는 살 수 없어. 난 더 이상 여기서 살수가 없어. 난 못해. 못한다 말이야.

헬렌 : 그레타, 언니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야. 나란 말야. 내가 언니한테 그러는 거야.

그레타: 아니야.

헬렌 : 맞아. 난 언제나 언니한테 그래 왔어. 난 언니랑 반대고, 언니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놔두지 않았어. 언니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난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어. 우리 가족 중에서 화가는 나왔으니깐. 언니는 아름다워지고 싶어했지만 난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 언제나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일 예쁜 건 나왔으니까. 언니는 언제나 늦게 나타나고 싶어했지만 문을 열고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건 언제나 나왔어.

그레타: 아니야.

헬렌 : 그래. 제발 그 빌어먹을 벽에서 내려 와!

(그레타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

아니면 나도 같이 데려가, 언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레타: 어쩔 수 없어.

헬렌 : 아빠는 돌아가셨어. 떠나게 놔 드려. 아빠가 언니를 강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어. 가지게 놔 드려! 아빠 때문에 애들 망치지 마! 언니네 가족은 언니를 사랑해. 그리고 언니가 형부를 사랑한다는 것도 난 알고 있어. 제발 언니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지 마.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

(그레타가 조용히 내려와 헬렌 옆에 앉는다.)

헬렌 : 언니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

그레타: 미안해.

(그레타가 헬렌을 감싸안는다. 둘 다 눈물로 울음바다를 만든다.)

헬렌 : 아빠는 내가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래서 난 사회주의자 아빠에게 복수를 했지. 난 아주 뺏속 깊이 자본주의자가 됐어. 난 돈이 되는 데만 가.

그레타: 세상에, 헬렌!

헬렌 : 난 그것보다 더 나쁜 짓도 했어. 돈에 대해선 죄의식 같은 건 없

어. 난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수녀도 몇 명 학비를 대 줬고.

그레타: 그래, 고아원. 너 엘리쉬에게도 돈을 보냈지.

헬렌 : 그랬어. 아니,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나쁜 일은 위대한 재능을 아무렇게나 헛되이 쓴 거야. 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받았어. 그리고 그 힘을 유혹하고 지배하는데 사용했어. 창조와 자유를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그 힘을 말야.

그레타: 그럼 뭐 할 거니?

헬렌 : 우선 집을 팔 거야.

그레타: 꼭 팔아야 하니?

헬렌 :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기 싫어. 어쨌든 언니가 나에게 집을 줬어. 언니 정말 못 됐어. 언니와 그 지겨운 뻘썩이 말야.

그레타: 하지만 넌 믿지 않았잖아.

헬렌 : 요만큼은 믿었어. (엄지와 검지로 모양을 만들며)

내가 언니에게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날 밤, 기억할 지 모르지만, 난 나가야 했어. 처음에는 침착했어.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선 가장 냉정하잖아. 난 기분 상할 일이 없었어. 내가 운전해서 집으로 도착했을 때 난 차 문에 손가락을 끼었어. 난 너무 슬퍼서 말초 신경에 전혀 감각이 없었거든. 뭐, 확실한 건 그 일로 난 원래의 나로 돌아왔다는 거야. (검게 멍든 엄지손가락을 바라본다.) 그래서 난 그 날 밤새도록 얼음비닐에 엄지손가락을 담그고 있었어. 얼음이 녹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깨는 바람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냉장고에 가서 얼음을 계속 꺼내와야 했으니 제대로 잠을 못 잔 거지. 새벽 다섯 시쯤 돼서 통증이 다시 심해졌어. 눈을 떴는데 그게 보였어.

그레타: 뭘 봤는데?

헬렌 : 빛의 날개와 눈들이 방들을 통과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붕

과 벽을 뚫고 조용돌이치며 떨어져 쌓였어. 그리고 그게 계속 거기에 있었어. 이파가 말한 것처럼. 난 그게 계속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레타: 그래서?

헬렌 : 난 잠이 들었어. 기운이 다 빠졌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보니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그레타: 아무튼 너 그거 팔면 안 돼. 아파트 말야. 그 곳이 마법의 장소인 지도 몰라.

헬렌 : 아니야. 그 장소는 내 안에 있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같이 가. 언니도 마찬 가지고.

그레타: 맞아. 나도 그래.

헬렌 : 가끔씩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누군가가 나를 놀래킬 때, 그리고 꿈이 다 끝나기 전에 깰 때, 난 한 순간 내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 때가 바로 내가 그걸 이루는 순간이야. 그 순간 내가 할 일, 내 위치, 내 역할을 가장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레타: 그래. (갑자기 소리에 반응하며)

헬렌 : 내 기억 때문에 보이지 않게 돼. 그래서 난 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

그레타: 들어 봐. 아기 소리 들리니? 들어 봐! 이렇게 아침 일찍 아기가 어디서 우는 걸까? 이렇게 가까이서?

(빅벤이 다섯 시를 친다.)

헬렌 : 아기 소리가 아니야. 시계 소리야.

그레타: 아니야. 아기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어머니. 나 또 시작했어, 그렇지?

헬렌 :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레타: 오 아니야. 아기 소리일 뿐이야. 웃고 있어.



헬렌 :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레타: 응. 그런 것 같아.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간다.)

헬렌 : 저기, 언니가 너무 깍듯한 건지도 몰라. 그냥 조금만 무례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언니는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레타: 내버려둬!

헬렌 : 바로 그거야. 형부한테도 언니 감정을 표현하란 말야! 그런 식으로!

그레타: 죠지한테?

헬렌 : 언니 형부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퇴장.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울려 퍼진다.)



## 제 8 장

그레타는 집에서 아기 요람을 흔들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빈 구석의 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레타 가까이에 놓여 있다.

그레타: 부활절이 지난 후 우린 이 곳으로 왔어. 숲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추위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 엄마와 나는 사냥을 하던 중이었어. 하지만 추위 때문에 짐승의 기척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먹을 것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린 개울가에 앉았어. 위를 쳐다보니 갑자기 그게 보였어. 수사슴, 뿔이 달린 까만 수사슴이 하늘을 등지고 어렴풋이 보이는 거야. 그 녀석은 봉우리 위에서 있었어. 이 수사슴은 추운 북쪽 지방에서 왔어. 그 녀석은 봉우리에서 뛰어 내려와 개울로 들어갔어. 엄마는 겁에 질렸지만

난 그 녀석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지. 난 가방에서 산딸기를 꺼내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사슴에게 먹였어. 사슴 얼굴이 얼어서 조심해야했어. 왜냐하면 그 녀석이 나한테 키스를 하려 했거든. 그리고 키스하게 놔두면 난 얼어죽을 테니까. 하지만 조금씩 먹이를 먹더니 얼굴의 점점 변해서 사람의 모습을 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음이 풀리기 시작했어.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 눈이 녹기 시작한 거야. 숲 속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세차게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물살이 자아내는 그 엄청난 소리는 내 귀를 가득 메웠어. (휴지)

그래서 난 수사슴의 등에 타고 세상 꼭대기로 날아갔어. 그는 강줄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지, 사람들이 비릇된 곳으로..... 강줄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던 거야, 사람들이 비릇된 곳으로....그리고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

- 김재현.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김효중. 「번역학」. 서울: 민음사, 1998.
-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 이근달.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 지정숙, 「번역의 기초이론」. 서울: 도서출판 한국번역연구원, 1997.
-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 \_\_\_\_\_. 「통역과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 신문사, 1997.

### 2. 번역서



- Koller, Werner 저 ·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마쓰모토 야스히로 · 마쓰모토 아이린 저 · 김정우 역: 「영어 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1997

### 3. 국외서

- Baker, Mona. *In Other Words*. New York: Routledge, 1992.
- Bassnett, Susan. and Lefevere, Andre. *Constructing Culture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Ltd, 1998.
- Hatim, Basil.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 Devon: University of Exeter Press, 1997.

- \_\_\_\_\_. and Mason. Ian.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New York: Routledge, 1997.
- Karttunen, Frances. *Between Worlds*.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
-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9.
-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New York: Routledge, 1997.
- Schaffner, Christina. *Translation and Quality*.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Ltd., 1998.
- Vandaele, Jeroen. *Translating and the (Re)Location of Meaning*. Leuven: CETRA, 1999

